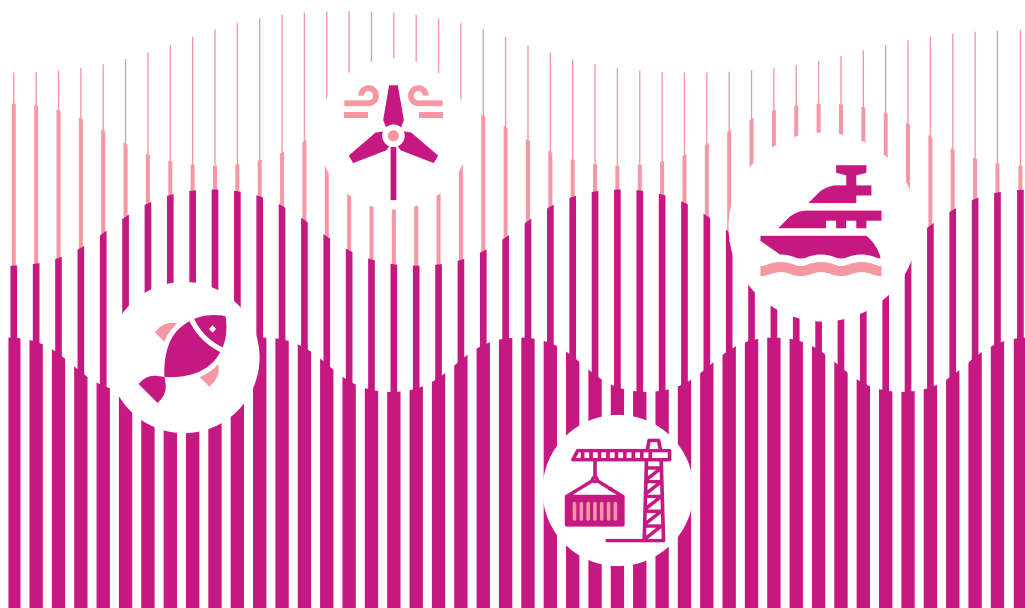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Korea-Afr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Fisheries

이채령 · 박찬엽 · 정명화 · 전해은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Korea-Afr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Fisheries

이채령 · 박찬엽 · 정명화 · 전혜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이채령, 박찬엽, 정명화, 전해은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채령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박찬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전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전문연구원
연구기간	2024. 3. 25. ~ 2024. 9. 24.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이채령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일부, 제3장 일부, 제4장 일부, 제5장 일부		
내부연구진	박찬엽	제1장 일부, 제2장, 제3장 일부, 제4장 일부, 제5장 일부	
	정명화	제4장 일부	
	전해은	제2장 일부, 제3장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이상목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센터장	
	강경미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개발국제협력연구소 조교수	
	권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신범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서기관	
	정지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주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대(對)아프리카 협력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는 13억 명에 달하는 인구와 풍부한 젊은 노동력, 빠른 경제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15개국 비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3개국이 포함되고, 아프리카 연합(AU)이 G20 영구 회원이 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많은 국가는 대아프리카와의 정례적인 협력 포럼과 정상회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협력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가 정치, 사회, 경제 협력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수산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이 한-아프리카 협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국제수산협력은 식량 안보, 일자리 창출, 빈곤퇴치, 양성평등 등 다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다. 아프리카는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안으로 하는 대륙으로, 대아프리카 수산협력은 높은 협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산업은 아프리카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수산물 생산량과 어업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어업, 어업 거버넌스 부족, 기후변화 취약성 등 해결해야 할 정책적·사회적 과제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어업, 양식업, 가공업 등 다방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왔기에, 아프리카 수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수산협력 본연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 일본, 노르웨이는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을 위한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자국의 민간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양측에 상호보완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제수산협력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기반과 효율적인 협력 체계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아프리카 수산 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동안의 협력 성과와 도전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국제협력 트렌드를 반영한 모델과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한-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총괄한 수산연구본부 이채령 전문연구원과 연구에 참여한 박찬엽 전문연구원, 정명화 연구위원, 전해은 전문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자문위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국제수산협력이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24년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 종 덕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 v

Executive Summary _ xiii

01	서론 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1. 선행연구 검토	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15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 협력 체계 및 현황_19	
	제1절 국제수산업 협력의 개요	19
	1. 국제수산업 협력 부문 법률 및 체계	20
	2. 국제수산업 협력 주요 추진정책	27
	제2절 대아프리카 수산업 협력 현황	32
	1.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및 전략	32
	2. 대아프리카 국제수산업 협력 추진정책	36
	3. 기타 아프리카 국제수산업 협력 사례	38
	제3절 시사점	42

03	아프리카 수산협력 트렌드 및 사례 분석 _45	
	제1절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트렌드	45
	1.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	45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정책 동향	47
	제2절 주요국의 국제수산협력 사례	52
	1. 미국	52
	2. 노르웨이	56
	3. 일본	63
	4. 중국	68
	제3절 시사점	73

04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방안 _75	
	제1절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	75
	1.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SWOT 분석	75
	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기본방향	81
	3. 추진전략	83
	제2절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사업(안)	87
	1. 국제수산협력의 핵심 사업	87
	2. 주요 정책과제	94

05	결론 및 정책 제언 _101	
	제1절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01
	1. 요약 및 결론	101
	2. 연구의 한계	103
	제2절 정책 제언	104
	1. 국제수산협력의 독자적 법률 기반 확보	104

2. 국제수산물협력 조직체계 개선	107
3.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	109

참고문헌_111

표 목차

〈표 1-1〉 본 연구의 주요 선행연구(국제수산협력)	7
〈표 1-2〉 본 연구의 주요 선행연구(아프리카 개발협력)	10
〈표 1-3〉 본 연구의 주요 선행연구(타 산업 국제협력사업)	13
〈표 1-4〉 연구의 주요 내용	16
〈표 2-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7
〈표 2-2〉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국제협력 관련 주요 내용	29
〈표 2-3〉 해양수산부 국제수산협력 관련 주요 추진사업	30
〈표 2-4〉 한·아프리카 수산포럼 심포지엄 개최 현황 및 주요 내용	39
〈표 3-1〉 NOAA Fisheries 아프리카 협력사업	55
〈표 4-1〉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특징 및 사업 요약	79
〈표 4-2〉 아프리카 국가별 수산특화 분류	96
〈표 5-1〉 타 부처 국제협력사업 계획 수립 현황	105
〈표 5-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106
〈표 5-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10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17
〈그림 2-1〉 수산분야 주요 법률과 국제협력 관련 조항 및 내용	22
〈그림 2-2〉 해양수산부의 국제수산협력 업무 체계도	25
〈그림 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주요 내용	26
〈그림 2-4〉 국제수산협력 주요 정책계획 반영 내용	28
〈그림 2-5〉 최근 5년간 전체 수산분야 ODA 대비 해수부 수산분야 ODA 비중	32
〈그림 2-6〉 최근 5년간 전체 수산분야 ODA 대비 한국국제협력단 수산분야 ODA 비중 ..	33
〈그림 2-7〉 최근 5년간 대아프리카 전체 ODA 대비 수산분야 ODA 비중	33
〈그림 2-8〉 관계부처 합동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및 1차산업 연계방안	35
〈그림 2-9〉 2023년 아프리카 대상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리스트	36
〈그림 2-10〉 최근 10년간 해외어장자원조사 추진현황	37
〈그림 3-1〉 USAID 수산분야 아프리카 개발협력을 위한 기초분석 내용	53
〈그림 4-1〉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SWOT 분석	80
〈그림 5-1〉 국제수산협력 조직체계도 구상(안)	109

약어 목록

- AfCFTA(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 AMCI(모로코국제협력단): Agence Marocai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 ATLAFCO(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국 수산 협력 각료 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on Fisheries Cooperation among African States bordering the Atlantic Ocean
- AU(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 COREP(기니만지역수산위원회): Commission Régionale des Pêches du Golfe de Guinée
-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EAC(동아프리카경제협력체): East African Community
- ECCAS(중앙 아프리카 국가 경제협력체):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 ECOWAS(서아프리카 국가 경제협력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IDA(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MR(노르웨이 해양연구소): Institute of Marine Research
- JICA(일본국제협력단):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RAFF(한-아프리카 수산포럼): Korea-Africa Fisheries Forum
- MDGs(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FA(노르웨이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NOAA Fisheries(미 해양대기청 수산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Fisheries
- Norad(노르웨이 개발협력청):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FCF(일본 해외어업협력재단): Overseas Fishery Cooperation Foundation of Japan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 PPP(민관협력): Public Private Partnership
 - SADC(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SAID(미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1. 우리나라 국제수산협력의 정책적 의의와 추진체계 파악을 위해 유관 법률체계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실시하고, 수산분야의 국제협력 정책 현황과 대아프리카 주요 협력사례를 검토함
2. 아프리카 수산 협력 트렌드와 사례 발굴을 위해 국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제기구, 미국, 노르웨이,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산 국가의 아프리카 수산협력 동향을 분석함
3.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추진여건을 SWOT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국제수산협력 전문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핵심사업 및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함

■ 추진전략

1. 아프리카 수산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분석
 - 수산업 발전에 관한 국가 계획 등의 문헌검토, 현지실사, 전문가 인터뷰 실시, 아프리카 국가들을 수산업 발전단계별로 분류하고, 국가의 실정을 반영한 단계별 지원 사업 추진

2. 세계 속 국내 수산업 강점과 경험을 연계한 협력

- 해외 어장 개척, 수산 양식, 가공 등 국내에서 축적된 수산부문 전문 노하우 전수, IUU 예비어업국 지정과 해제 경험을 통한 국제규범 대응체계, 수산 전문 교육기관 연계한 아프리카 협력 추진

3. 국제수산협력 사업의 패키지화

- 협력사업의 중복성 해소, 단계적 및 분야별 총괄 운영체계 도입을 통한 효율적 운영, 국제기구 및 민간 네트워크 활용 차원에서 패키지형 사업 추진

4. 민간부문 개발협력 참여 유도

- 사업의 지속가능성, 효과성 향상을 위해 민관협력(PPP) 메커니즘을 개발 대상국과 민간참여자의 니즈에 맞게 선택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정책 과제

1. 국제수산개발협력 운영체계 명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수산정책 운영주체를 법률로서 명확히 하고, 전략구상, 계획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세부계획 수립

-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아프리카 협력전략과 같이 해양수산부 차원의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3. 국제수산협력 운영 조직 강화

- 해양수산부의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수산협력 사업 방향성 통일과 수산 ODA 사업의 일관된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부서 설치 및 전문기관 지정 기간 조정 검토

4. 국제수산협력 특화 재원 조성

- 국내 수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협력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국제수산협력 펀드 조성

■ 정책 제언

1. 국제수산협력의 독자적 법률 기반 확보

- 수산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법률 기반 확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운영 주체의 명확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수산협력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국제수산협력 조직체계 개선

- 국제수산협력팀 신설을 통한 지역별, 유형별 정책업무 전문화, 국제 수산개발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수산업 분야별 의제 발굴 활성화 및 정책적 협력을 도모하는 구심점 확보

3.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

-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현지 정보 확보, 외교력 기반의 규모화된 사업 발굴 및 다각적 형태의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민간 협력을 활성화 하여 수산부문 제안 요소 확대, 정책 자문 기반 확보

요 약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 박찬엽 · 정명화 · 전해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아프리카의 경제적 및 정치적 협력 잠재력이 재평가되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우리나라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달성에 필수
- 아프리카는 빠른 경제성장, 인구증가 등 경제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로 협력 잠재력 또한 높은 대륙으로 평가되어, 최근 미국, 중국, 일본은 ‘외교안보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대아프리카 협력 사업 활발
-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22),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23) 등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제협력사업 확대를 발표
- 수산부문 국제협력은 대아프리카 협력 다각화로 국가 대외전략에 기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수산 ODA 예산, 개발수요와 국가 전략간 차이, 협력 수요의 사업화 한계로 협력 확장 기반이 부족한 상태

-
- 국제수산협력은 생물다양성 확보, 식량 생산,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 시스템 복원력 확보 등 사업 다각화가 가능한 분야이지만, 최근 5년간 아프리카 지역 수산분야 ODA 규모는 평균 0.31%에 불과
 - 정부, 공공기관을 통해 아프리카의 신규 협력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지만,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시의성 있는 협력 사업 추진 불가
 - 아프리카 수산업의 질적 성장 한계와 국내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양측은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 협력이 필요
 - 아프리카는 수산물 생산량과 어업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어업 거버넌스 부족, 불법어업, 기후변화 취약성 등 정책적·사회적 문제에 직면
 - 국내 수산업은 연근해 어획고 하락과 젊은 어선원 부족으로 어업경영난 지속, 해외어장 자원조사 참여자 확대 등 기존의 국제수산협력 방향 변화
 - 新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및 국내외 수산협력 트렌드를 반영한 양측의 현안 해결 중심의 협력이 필요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99번)와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73번) 실천에 활용
- 아프리카 국가의 불법어업, 자원남획,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수산규범 준수 및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국정과제 99번에 기여
- 한-아프리카 수산업의 공동 발전과 경쟁력을 고려한 국제수산협력 사업(안)으로 국정과제 73번에 기여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활성화와 잠재력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
- 우리나라의 국제수산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그간 추진해 온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제시
- 궁극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와 모델로 협력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OECD, ODA Korea 등 국제수산협력 관련 통계 데이터, 국제기구 및 국내 국제수산협력 유관 기관 보고서,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국제수산협력의 의의와 현황 파악
-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아프리카 수산부문 협력사업 트렌드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헌조사 실시
- 국제개발협력의 전체적인 흐름과 다자개발기구의 정책기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수산협력 사업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주요 아프리카 공여국의 개발협력 보고서 및 통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브랜딩 사업 구상에 참고
- 전문가 자문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SWOT 분석 후,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방안 수립

2) 정책화 방법

- 해양수산부 국제수산협력 사업의 기획, 운영·관리, 시행 등 각 부문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현 체계의 한계점과 대아프리카 협력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파악
- 새롭게 구상한 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모델과 체계 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국제수산협력 정책 담당자 의견 조회 실시
- 신규 아프리카 수산협력 사업 어젠다 발굴을 위해 알제리 정부와 수산부문 협력 방안 회의 개최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타 부처 ODA 전달기관의 자문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인터뷰 병행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해양수산부의 국제수산협력 체계 정비 필요
- 현재 수산분야 국제협력은 일관된 정책과 체계 없이 과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산 ODA 사업은 부처 내외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이 부족한 문제 발견
- 아프리카는 한국과 협력이 미진했던 지역으로, 기초정보 수집과 환경 분석에 기반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만큼 체계적이고 명확한 전략이 요구
- 국제수산협력의 정체성 확립과 선진 공여국과의 차별화가 관건
- 미국은 국제수산협력 사업을 경제활동 측면과 수산자원관리의 국제 규범

화를 촉진하는 측면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노르웨이는 어업 및 양식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

- 일본은 해외어장확보를 위해 어업 중심의 기술·경제 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소수 국가에 집중해 ODA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수산물 공급을 목표로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
-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에서 ODA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향후 수산부문 ODA 사업은 기후위기, 양성평등,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지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주요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
 - 국내 국제수산협력의 SWOT 분석을 통해 국제수산협력의 정책적 목표를 ‘상호 협력을 통한 양 지역의 경제발전과 상호 이익 증진’으로 설정
 - 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수산협력의 기본방향은 ‘민간부문의 아프리카 수산 진출의 기회로 활용, 국내 수산업의 당면 현안(수산 인력 감소 등)과 아프리카의 당면 과제(빈곤 해소 등) 해결, 아프리카 국가의 국제수산규범 준수와 이행 지원,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성과 정합성 도모’임
 -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전략은 ‘현지 경제발전 맞춤형 사업 추진, 비교우위에 근거한 국내 수산업 고유 발전경험 전파, 패키지 사업 추진, 민간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이며, 핵심사업(안)으로는 ‘수산업(K-Fisheries) 확대 지원 사업, IUU 어업 예방 및 근절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수산협력 사업’을 제안
 - 새롭게 제안된 국제수산협력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명확한 국제수산개발협력 운영체계를 위한 법률 제·개정,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세부계획 수립, 국제수산협력 운영 조직 강화, 국제수산협력 특화재원 조성’이 포함

2) 정책화 방안

- 국제수산업협력의 독자적 법률 기반 확보
 - 1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개정: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제 21조의2제1항에 해양수산업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지원 항목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함. 기존의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칭)「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추진체계, 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사업수행·평가·사후관리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2안)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법률 제정: 해외수산업자원개발종합계획, 해외 수산업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을 포함한 독자적인 법률 (가칭)「해외수산업 개발협력법」 제정을 제안
- 국제수산업협력 조직체계 개선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내 국제수산업협력팀을 신설하여, 국제협력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산 ODA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 (가칭)국제수산업개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산부문 국제협력에 대한 총괄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 과에서 진행하는 협력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정책적 협력을 도모
-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
 - 국제수산업협력 추진에 있어 민간과 국제기구와의 연계는 사업 방향 설정, 효과적인 운영, 전문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맞춤형 사업 개발과 외교력 기반의 협력 다각화 가능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아프리카 대륙과의 수산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양국의 경제발전과 외교적 연대 강화로 발전 가능함
-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산업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수산업의 위상 제고를 기대함

2) 사회·환경적 기대효과

- 아프리카 내 수산업 발전을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빈곤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국가에 식량 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공함으로써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함
- 한-아프리카 수산자원관리 협력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3) 산업·기술적 기대효과

- 한국의 수산 기술과 자원관리 경험을 아프리카에 공유함으로써 아프리카 수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한국 수산업의 진출 및 활동 범위를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신시장 개척과 인력 부족 문제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아프리카는 발전된 수산 기술과 인프라에 기반한 산업 성장을 기대함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Improving the Korea–Afr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Fisheries

Chae-Ryeong Lee · Chanyeop Park · Myeonghwa Jung · Haeun Jeon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As the potential for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with Africa is reassessed, cooperation with Africa is essential for advancing the Republic of Korea’s national policy goal of becoming a “global pivotal state.”
- Africa is evaluated as a continent with high potential for cooperation, driven not only by its rapid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surge but also by its growing influence in the global arena. Recently, the U.S., China, and Japan have been actively engaging in cooperation projects with Africa based on their “diplomatic and security interests.”

-
-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formulated strategies for cooperation with Africa, such as the Indo-Pacific Strategy ('22) and the Africa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3), and announced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t the Korea-Africa Summit.
 - Despite the potential of fisheries cooperation to contribute to the diversification of Africa-related cooperation and our nation's external strategy, its expansion is hindered by limited fisheries ODA budgets, discrepancies between national strategies and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fisheries, and challenges in translating cooperation demand into actual projects.
 -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holds significant potential for diversification, including securing biodiversity, food production, job creation, and enhancing the resilience of food systems against climate change. However,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share of ODA for the fisheries sector in Africa has averaged only 0.31%.
 - While new cooperation demands in Africa's fisheries sector continue to arise through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he absence of a system to translate these needs into projects prevents their timely execution.
 - Considering the limitations in the qualitative growth of Africa's fisheries industry and the structural issues of the domestic fisheries sector, mutually beneficial and sustainable fisheries cooperation is necessary.

- Despite growth in Africa's fish production and fishing workforce, the continent grapples with policy and social issues such as weak fisheries governance, illegal fishing, and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 The domestic fisheries industry continues to suffer from declining coastal catches and a shortage of young crew members, resulting in ongoing management difficulties. There is also a shift in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such as expanding participation in overseas fishing ground resource surveys.
- Cooperation that addresses the current challenges of both sides, reflecting the new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radigm and tren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is necessary.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tilized in the implementation of two key national projects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Strengthening the role of a global pivotal state befitting the nation's stature" (Project No. 99) and "Prosperous fishing villages, vibrant oceans" (Project No. 73).
- By proposing projects to address the pressing issues of African countries, such as illegal fishing, resource overexploitation, and job creation, as well as supporting the compliance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isheries regulations, it will contribute to Project No. 99.

-
- Through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draft) that consider the joint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Africa's fisheries industri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ject No. 73.

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fundamental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o revitalize Korea-Africa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and realize its potential.
-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Korea's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reviewing the achievements and reflections of past Korea-Africa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efforts, and comprehensively examining international cas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 This study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fulfilling Korea's responsibility as a global pivotal state by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through a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Korea-Africa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model.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ology

- Through the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from organizations

such as OECD, ODA Korea, as well as repor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 institutions involved in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and relevant laws,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and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 Expert consultations and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ing paradigm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trends in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with Africa.
-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verall tren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policy directions of multilateral development organizations, this study solidifies and defines the goals of Korea's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Additionally,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s and statistics from major African donor countries will be analyzed as references for Korea's branding project planning.
- Based on expert consultations and literature reviews, a SWOT analysis was conducted, and improvements for the Korea-Africa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system were developed.

2) Policy-making methods

-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planning, management, and execu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and challenges in operating Africa cooperation projects.

- To validate the feasibility of the newly devised Africa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model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feedback was gathered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policy officers.
- A meeting with the Algerian government was held to explore cooperation measures in the fisheries sector and to identify new agendas for Africa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 In order to propose feasible system improvement measures, consultations with ODA-dedicated agencies from other ministries and interviews with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akeholders were conducted.

3. Result

1) Summary

- The need to reorganize the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system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Currentl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sheries sector pursued independently by various departments, lacking a unified policy or cohesive system. Particularly, fisheries ODA projects are implemented sporadically both within and beyond the

ministry, leading to issues with continuity and effectiveness.

- Africa is a region where cooperation with Korea has been lacking, highlighting the need for detailed strategies based on the collection of basic information and environmental analysis, a systematic and clear strategy is required.
-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and differentiating it from the approaches of advanced donor countries is key
- The U.S. operates its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 two aspects: promoting economic activities and advanc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Meanwhile, Norway pursues package projects based on global partnerships in the fisheries and aquaculture sectors.
- Japan operates fisheries-centered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imed at securing overseas fishing grounds and concentrates its ODA efforts on a small number of countries. In contrast, China undertakes large-scale cooperation projects aimed at securing a supply of seafood for its own market.
- ODA is a core policy tool in Korea's external strategy. Future fisheries ODA projects should aim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such as the climate crisis, gender equality, and biodiversity. Strategies are needed to maximize expertise and effectiveness through partnerships with various stakeholders.
- Proposed measures and key policy tasks for improving the Korea-Africa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system

-
- Through a SWOT analysis of Korea's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the policy goal of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was set as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mutual benefits in both regions through mutual cooperation."
 - The basic direction for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to achieve this goal includes: utilizing it as an opportunity for the private sector to expand into Africa's fisheries sector, addressing the current issues facing Korea's fisheries industry (such as the decline in fisheries manpower) and Africa's challenges (such as poverty alleviation), supporting African countries in complying with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fisheries regulations, and aligning wit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ion of the global community.
 - The strategic directions are "implementing locally tailored projects for economic development, sharing Korea's unique development experiences in the fisheries sector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promoting package projects, and building a foundation f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Key proposed projects include "expanding K-Fisheries support projects, cooperating on building systems to prevent and eliminate IUU fishing, and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for marine mammal protection."
 - The policy task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newly proposed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projects include "establishing and revising laws for a clear operational system for international fisheries development cooperation, formulating detailed plans for Africa fisheries cooperation, strengthening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and creating specialized financial resources for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2) Policy recommendations

- Securing an independent legal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 Option 1)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marine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21-2,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Fishery Development” will be amended to specify the support item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marine and fisheries sector. This will enabl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is work. The existing “Regulations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Agenci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Marine and Fisheries” will be renamed (provisionally) as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Marine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providing clarity on the promotion system, planning, project identification, execution, evalu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 Option 2) Enactment of an independent law on marine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proposal suggests establishing a new independent law (tentatively named the “Overseas Fisherie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ct”) that includes a comprehensive plan for overseas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support for overseas fisheries resource development, and marine and fishe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 A new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Team wi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to enhance expertis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tasks and serve as a control tower for fisheries ODA projects.
- A (tentatively named) International Fisheries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will be established to serve as a platform for comprehensive dialogue on global fisheries cooperation, reinforcing interdepartmental project alignment and advancing cohesive policy collaboration.

- **Strengthening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 Promoting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requires strategic partner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guide project direction,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hance expertise. These partnerships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projects and diversify cooperation based on diplomatic capabilities.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Through fisheries cooperation with the African continent, Korea can strengthen it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and this cooperation may lead to future economic development and stronger diplomatic ties between both regions.
- By supporting African countries in complying with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fisheries standards, Korea can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in Africa, while also enhancing the status of Korea's fisheries secto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ies industry in Africa can create related jobs, alleviate poverty, and strengthen food security by providing resilience in food systems, particularly in countrie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 Korea-Africa cooperation in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fishery resources and securing biodiversity, thereby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3)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effects

- By sharing Korea's fisheries technology and resource management experience with Africa, the qualitative growth of Africa's fisheries industry will be promoted, which will increase fisheries productivity in the long term.
- Expanding the scope of Korea's fisheries sector into Africa will open new markets and help address issues such as labor shortages. Meanwhile, Africa can expect industrial growth based on advanced fisheries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01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아프리카 대륙의 정치·경제적 협력 잠재력이 높아짐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13억 인구가 거주하는 아프리카는 빠른 경제 성장률과 높은 인구 증가율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¹⁾ 2021년에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을 공식 발효하고, 2023년에는 G20의 영구 회원국이 되면서 아프리카는 글로벌 사우스로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UN 회원국의 28%(전체 193개국 중 54개국)를 차지하는 최대 지역그룹으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대규모 협력사업을 상호 합의하고 있다.²⁾

1) 관계부처 합동(2023), p. 1.

2) 예시로, 미국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등 55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중국은 2018년 기준 향후 3년간 600억 달러 투자를, 일본은 농업·교육분야에 30만 명 인재를 육성하기로 약속하였다(한국일보(2023.1.10.)(검색일: 2024.2.22.)).

대한민국 정부 또한 대외정책 방향을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하여,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달성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1월에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과 2023년 2월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발표하여 한-아프리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6월에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예산을 100억 달러, 수출금융을 약 140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을 선언하여, 한-아프리카 국제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³⁾

그렇다면 국제수산협력은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에 어떠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까? 수산부문 협력은 수산자원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식량 생산을 통한 기아 감소,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퇴치,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 시스템 복원력 확보 등⁴⁾ 다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만큼 협력 사업의 다각화가 가능한 분야다. 우리나라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은 새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기여와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목표로 2010년대 초반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단독·합작 선사 16척만이 아프리카 해역에 입어하고 있고⁵⁾, 정부의 유·무상 원조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 Korea-Africa Fisheries Forum) 등으로 아프리카와 수산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수산부문은 대아프리카 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3) 정부는 ODA 예산을 EDCF 기본약정 확대와 무상원조 지원 강화 등으로 확대하고,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선언하였다(대한민국 대통령실 보도 자료(2024.6.4.)(검색일: 2024.6.23.)).

4) KOREA OCEANAID 홈페이지(검색일: 2024.6.27.); World Bank(2020), p. 72; Blue Food Assessment(2021), p. 24.

5) 한국원양산업협회 이상목 센터장 서면자문(2024.7.1.)을 바탕으로 작성

적인 국내 수산 ODA 예산, 개발수요-국가 전략 간 차이, 협력 수요의 사업화 한계로 협력 확장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27개 ODA 중점협력국 중 수산분야 ODA는 세네갈,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3개국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프리카 지역으로 지원된 전체 ODA 사업에서 수산분야 ODA 규모는 평균 0.31%에 불과하고⁶⁾, 대부분 연수사업과 물자지원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왔다.⁷⁾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KORAFF를 통해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가나 등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는 꾸준히 수산협력을 요청해 왔지만, 이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는 수산물 생산량과 어업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유일한 지역으로⁸⁾, 그만큼 정책적·사회적 이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아프리카는 전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 지역인 아시아의 연평균 성장률인 2.36%를 상회하는 2.81%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⁹⁾, 양식어업인은 20년 동안 약 2.7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 수산업의 양적 성장과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1인당 수산물 명목 소비량은 세계 평균인 20.6kg보다 훨씬 낮은 9.4kg에 불과하다. 이는 2015년의 9.9kg보다 감소한 수치로¹⁰⁾, 인구 증가, 어업 거버넌스 부족, 불법 어업, 기후변화 취약성¹¹⁾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수산업과 관련된 이슈

6)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4.6.28.)

7) 수산부문 EDCF 사업은 양골라 어선건조사업(1988년)과 어류가공시설 및 냉동창고 건립사업(2018년), 세네갈(2017년) 냉동탐차 공급사업과 냉장창고 건립사업이 있다(한덕훈 외(2019), p. 120).

8) 아프리카 어업 및 양식업 종사자는 1995년 281만 2천 명에서 2018년 540만 7천 명으로 증가하고 (FAO(2024), p. 61), 동일 기간 아프리카의 수산물 생산량은 약 606만 7천 톤에서 1억 314만 5천 톤으로 증가하였다(FAO FishStat(검색일: 2024.6.27.)).

9) FAO(2024)에서 활용된 FishStat의 가장 최신 통계는 2022년으로, 최근 10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한다.

10) 아프리카 지역의 1인당 수산물 명목 소비량은 2015년과 2017년에 9.9kg, 2019년에 10kg, 2021년에 9.4kg으로 나타난다(FAO(2018), p. 72; FAO(2020), p. 70; FAO(2022), p. 85; FAO(2024), p. 74).

11) World Bank Blogs(2017.11.11.)(검색일: 2024.2.26.); World Bank(2020), pp. 72-73.

와 문제점, 특징은 아프리카 개별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산업은 어장의 어획고 하락과 어선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해외어장자원조사 사업자가 기존의 원양어업에서 연안어업으로 확대되는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원조사 사업뿐만 아니라 한-아프리카는 양측이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과학적 자원조사 및 감시에 기반한 어업관리 시스템 전수, 어업정책·행정·관리, 양식 기술 협력 등이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는 현지 청년 대상 어법 및 승선 교육, 수산자원 공동 조사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아프리카의 국제수산협력은 아프리카의 식량안보와 함께 대륙 차원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적정 일자리와 경제적 취약성 극복’ 과제 해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¹²⁾

그동안 아프리카 수산협력은 ODA를 통한 물자공여 사업과 연수사업 위주로 운영되었다. 즉, 협력·교류 개척 단계의 국가가 많이 존재하기에, 국제수산협력은 ODA 사업에서 시작하여 외교적 협력 강화, 기업 진출 리스크 경감 등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접근은 전략의 다각화를 통해 다중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목적인 수원국의 역량 강화, 빈곤 감소, 성장·개발의 제약 요인 극복뿐만 아니라 분쟁, 난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문제와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¹³⁾ 한편, 중앙정책 차원에서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사업 중심의 재원 편성과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수원국 중심 사업,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어, 수산부문 ODA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책 변화와 함께 다각화된 사업 접근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¹⁴⁾

12) Kappel, Robert(2021), p.2; AfDB·ECA·UNDP(2024), pp. 1-8.

13) 한국개발연구원(2023), pp. 1-30.

종합해보면, 수산분야 한-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한-아프리카의 견고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과 동반 성장을 위한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실질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024년 OECD-DAC 아프리카 수원국 54개 중 36개국(이 연안국이며, 이중 22개 국가는 최빈개발도상국¹⁵⁾)인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수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외여건은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고무적인 조건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국제수산협력 체계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대외 전략 이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산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그간 추진해 온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성과와 반성, 해외사례 검토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와 모델 개발 및 실질적인 협력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양국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견고한 수산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6.30.)(검색일: 2024.6.2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6.26.)(검색일: 2024.6.26.)

15) OECD의 ODA recipients: countries, territo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검색일: 2024.3.2.)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내륙호와 접한 말라위(Malawi), 우간다(Uganda), 잠비아(Zambia)를 포함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1) 국제수산업협력

국내외 국제수산업협력의 전략 수립, 협력 사업 발굴,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등 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수산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방법, 그동안의 국제수산업협력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과 발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010년 진행된 홍현표 외(2010)는 수산분야의 중장기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ODA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협력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중서부태평양 도서국의 협력 수요와 가능성을 분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홍현표 외(2011)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수산부문 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을 연구하였다. 문헌조사, 심포지엄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수산협력 모델을 유형화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명화 외(2015)는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지역의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연구하였다.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 현황과 주요 공여국 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수원국의 해양수산부문 SWOT 분석을 통해 ODA 수요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의 해양수산 ODA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도출하였다.

2019년에는 가나의 수산부문 개발협력 방안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덕훈 외(2019)는 가나의 수산업 현황과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문헌조사와 현지조사(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가나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Pittman, Jeremy et al.(2019)은 수산 개발 자금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산부문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구조적 패턴을 조사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장기적으로 교류되는 주요 요인을 협력 지속기간, 지원 규모, 외부 파트너 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수산 ODA는 1년 이상의 단기적인 협력 관계가 일반적이며, 일부 지정학적 전략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한덕훈 외(2021)는 해양수산 전문기관의 역할을 담은 해양 수산 ODA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외 ODA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ODA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후,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해양수산 ODA 이슈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자체 평가 강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전문가 자문도 시행하였다.

〈표 1-1〉 본 연구의 주요 선행연구(국제수산협력)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과제명: 수산분야 ODA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연구자(연도): 홍현표 외(2010) • 연구목적: 수산분야의 중장기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 도출	• 국내 공적개발원조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 파악 후, 해외 개발원조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수산부문별 개발 경험 분석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중서부태평양 도서국의 ODA 필요성, 현황, 협력 가능성 분석 • 우리나라 수산분야 ODA 사업의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 방향 및 전략 도출
• 과제명: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홍현표 외(2011)	• 아프리카 일반 현황 및 협력 필요성, 한국 진출 현황 • 아프리카 수산협력 모델 유형화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연구목적: 한국과 아프리카 수산부문 협력 방안 및 추진 전략 제시	수산협력 사업의 목표 및 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 체계, 중단기 로드맵
- 과제명: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굴 연구 - 연구자(연도): 정명화 외(2015) - 연구목적: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지역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본방향 제시 및 협력사업 발굴	-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 현황 - 주요 공여국의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례 분석 - 주요 수원국의 해양수산분야 SWOT 분석 통한 ODA 협력 수요 검토 - 한국의 해양수산분야 ODA 기본방향 및 세부 전략 도출
- 과제명: Post 2015의 개발의제 주요 논의 동향 및 시사점(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조정희 외(2015) - 연구목적: Post-2015 체제하에서 해양수산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전략 제시	-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동향 - 지속가능개발목표 주요 내용 및 지표 - 주요 국제기구 및 개발도상국의 Post-2015 대응 및 시사점
- 과제명: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한덕훈 외(2019) - 연구목적: 對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사업 방향 설정과 추진 사업 발굴	- 가나의 수산업 현황, 수산분야 개발협력 지원 등 현황 분석 - 한국의 대아프리카(가나 포함) 수산분야 지원 사례 분석 및 사업 평가 - 對가나 수산분야 개발협력의 기본방향, 개발협력 방안 및 세부사업 제안
- 과제명: A global assessment of structural change in development funding for fisheries - 연구자(연도): Pittman, Jeremy et al. (2019) - 연구목적: 수산 개발 자금의 구조적 변화와 장기 협력 관계의 요인 연구	- 수산부문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구조적 패턴 변화 - 공적개발원조 네트워크 안정성(장기적인 교류 형성)의 주요 요인을 협력 지속기간, 지원 규모, 외부 파트너 수를 고려하여 도출
- 과제명: 해양수산 전문가관 지정에 따른 해양수산 ODA 중장기 발전전략 - 연구자(연도): 한덕훈 외(2021) - 연구목적: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해양수산 ODA 정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 ODA 중장기 발전전략 제언	- 국내외 ODA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 ODA 현황과 과제 도출 - 신규 해양수산부문 ODA 사업 발굴을 위한 다각적 모색, 사업관리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사업 발굴 및 관리방안 제시 - 해양수산 ODA 비전, 전략, 단계별 전략 및 로드맵, 협력사업(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연구

자료: 저자 작성

2) 아프리카 개발협력

국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성 및 개발협력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신 선행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ODA 및 경제협력 사업 추진 시 고려된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 수립 방법을 검토하였다. 박영호 외(2012)는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중점 협력대상국의 최우선적인 개발수요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 한국과 아프리카 전문가 그룹 회의 개최, 현지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재훈 외(2019)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 무역 및 투자 증대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프리카 지역공동체의 현황과 평가, AfCFTA 발효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계층분석법으로 AfCFTA의 제도적·구조적 과제 검토, 한국 기업 진출 거점국가 선정 및 주요 투자 유망 산업을 도출하였다.

이승호·강문수(2021)는 중국의 대중남미 및 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토빗모형,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대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경제협력 결정요인과 파급효과,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경제협력이 한국의 대중남미 및 아프리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AU 외(2022)는 “2022 Africa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구조적 약점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주요 부문별(교육, 여성, 물, 삶, 파트너십) 중요성, 목표 달성 현황, 전망,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아프리카 어젠다 2063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강석 외(2023)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보 분야에서 주요국의 경제개발 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협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식량안보 현황과 정책적 대응, 식량위기에 대한 미디어 인식 분석, 주요국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식량안보 분야 협력 사례를 다루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안보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2〉 본 연구의 주요 선행연구(아프리카 개발협력)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과제명: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 방안 • 연구자(연도): 박영호 외(2008) • 연구목적: 아프리카 저개발 현황과 핵심 원인 규명,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 조명 및 개발협력 방안 제시	• 아프리카 저개발의 특징 및 발전 전망 •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현황 및 특징 • 한·아프리카 협력 확대 잠재성: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 •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방향 •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 과제명: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 연구자(연도): 박영호 외(2012) • 연구목적: 아프리카 중점협력대상국의 최우선적인 개발수요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제시	• 아프리카 정치·경제 현황 •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본 개발) •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 과제명: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 연구자(연도): 이재훈 외(2019) • 연구목적: 한국의 대아프리카 시장 접근 전략 제시로 한국기업의 진출, 무역 및 투자 증대 방안 탐색	• 아프리카 지역공동체의 현황과 평가 • AfCFTA 발효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 구조의 변화와 전망 • AfCFTA의 제도적·구조적 과제 검토 • 한국기업 진출 거점국가 선정 및 주요 투자 유망 산업 도출, AfCFTA 대응 정책 제안
• 과제명: KOICA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 1차 아프리카지역전략 평가 및 시사점 도출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연구자(연도): 한국국제협력단(2020) • 연구목적: 아프리카의 변화된 개발 환경과 국내·외 ODA 환경을 반영한 2차 아프리카지역 협력전략 수립	• 국내·외 환경분석, AU 비전 및 주요 전략, 대 아프리카 지원 동향, 협력 수행 경험 등 다방면을 고려한 아프리카 지역 공통 및 권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 과제명: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 연구자(연도): 이승호·강문수(2021) • 연구목적: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 특성 분석 및 국내 정책 관련 시사점 도출	• 중국의 경제협력의 특성 • 중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결정요인 및 파급효과 • 중국의 경제협력이 한국의 대중남미·아프리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과제명: 2022 Africa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 연구자(연도): AU/UNECA/AfDB/UNDP(2022) • 연구목적: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정책을 설계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 대륙의 구조적 약점과 취약성 파악 • 주요 부문(교육, 여성, 물, 삶, 파트너십)별 중요성, 목표 달성 현황, 전망, 정책 프레임워크 분석 후, 시사점 도출 •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아프리카 어젠다 2063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
• 과제명: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 연구자(연도): 김강석 외(2023) • 연구목적: 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주요국 지역 식량안보 분야 경제개발 협력 동향 분석 및 국내 협력 전략 도출	• 중동·북아프리카의 식량안보 현황과 정책적 대응 • 중동·북아프리카의 식량위기에 대한 미디어 인식 분석 • 주요국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안보 분야 협력 • 한국의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안보 분야 협력 방안
• 과제명: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id in the EU-Africa Partnership • 연구자(연도): Ayadi, Rym & Ronco, Sara(2023) • 연구목적: EU의 대아프리카 개발 및 협력 역할 분석	• 세계 및 유럽 거버넌스의 아프리카 개발 정책 발전과 트렌드 • EU의 대아프리카 국제협력 및 개발원조 행동주의 분석 및 효과성 평가 • EU의 개발정책과 행동력 효과 증진에 있어 도전과 기회 분석

자료: 저자 작성

3) 타 산업의 국제협력사업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 일반산업, 교통 등 수산업보다 규모가 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협력 체계를 검토하고, 전략 수립 접근 방법을 참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대섭 외(2012)는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분석과 국내 농업경제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다자개발기구와 선진공여국 자료를 활용한 국내외 문헌연구와 관계 기관 초청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주동주 외(2017)는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 무역 및 투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협력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아프리카 전문가 자문회의, 아프리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산업 개발과 한국의 개발 협력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접근법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훈기 외(2023)는 국토교통 ODA 사업의 현안을 도출하고, 기수행된 ODA 사업 평가를 통해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사업 기본계획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규 사업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ODA 정책 기조 분석, 국토교통 ODA 추진 사업 및 1차 기본계획 검토 후 현안 과제 도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국토교통 ODA 평가, 중점 지역 및 분야 선정, 그리고 국토교통 ODA 추진 전략과 방안 제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중점 추진 사업을 제시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신희철 외(2023)는 교통 ODA 사업의 중점 협력국과 세부 분야의 부적절성을 해결하기 위한 ODA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여 한국의 교통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SWOT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교통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 세부 방안,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1-3〉 본 연구의 주요 선행연구(타 산업 국제협력사업)

연구 제목 및 목적	주요 내용
• 과제명: 국제사회 농업·농촌부문 협력전략 분석-시사점 및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이대섭 외(2012) • 연구목적: 국제사회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분석을 통한 국내 농업경제 세계화 전략에 관한 시사점 도출, 적용방안 제시	• 국제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동향 • 국제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전략 및 체계 • 우리나라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추진체계 •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개선 방안
• 과제명: 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전략 연구-동부 아프리카 주요국을 대상으로 • 연구자(연도): 주동주 외(2017) • 연구목적: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 무역,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협력 전략을 연구	• 동아프리카의 경제적 특징, 시장 특성, 발전 여건 • 주요 산업 구조와 산업 발전 정책 분석 후, 주요 산업개발 프로그램 파악 •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의 동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 및 협력 현황 분석 • 한국의 동아프리카 산업개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협력 및 개발협력 현황 분석 및 한국기업 설문조사 진행
• 과제명: 국토교통 ODA사업의 현황진단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이훈기 외(2023) • 연구목적: 국토교통 ODA 사업 현황 파악으로 현안 도출, 기수행된 ODA 사업 평가로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사업 기본계획의 개선 방향 제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규사업 검토	• 국내외 ODA 정책 기조 분석 • 국토교통 ODA 추진 사업 및 1차 기본계획 검토 후 현안 과제 도출 • 전문가 설문조사로 국토교통 ODA 평가, 중점지역 및 분야 선정 • 국토교통 ODA 추진 전략과 방안 제시
• 과제명: 지속가능한 교통부문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방안 • 연구자(연도): 신희철 외(2023) • 연구목적: 교통 ODA 사업 중점협력국과 세부 분야의 부적절성을 해결한 ODA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제시로 우리나라 교통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정책 동향, 국내외 교통 ODA 현황 및 특징 분석 • 교통 ODA 유형화 및 유형별 사례 분석 • 중점협력국별 협력분야 선정 • 교통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 세부 방안, 정책과제 제안

자료: 저자 작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확장을 목적으로 국제협력체계 개선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이 아프리카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아프리카 지역의 수산협력 정책을 발굴,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한-아프리카 수산업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 관련 연구라는 점에서도 시의성이 있고,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제수산협력에 관한 법률 및 정책추진 구조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제수산협력 체계 및 유관 법률, 그리고 다양한 추진 사업을 검토하여 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정책추진과 개선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점,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수산분야 협력 사업이 부족했던 이유와 도전과제를 도출 및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사항과 정책과제를 제시함에 있어,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정책연구로서 국가가 참여하는 수산부문 공적개발원조(ODA)

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그리고 수산분야의 국제협력정책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중점 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업 관련 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국제협력사업 및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협력사업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해외사례 분석의 경우 주요 공여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수산협력 사업과 민간 주도로 진행된 대표적인 수산협력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본 연구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수산협력의 의의와 협력 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확인하고, 기존의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OECD, ODA Korea 등 통계 데이터와 국제기구 및 국내 유관기관 보고서, 관련 법령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비전 실현과 국가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수산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제수산협력 계획이 필요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및 조직 강화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국제개발협력 트렌드와 아프리카의 주요 개발협력국의 수산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제개발협력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자문 및 주요 다자개발기구의 ODA 정책 기조를 분석하였으며, 각국 정부와 ODA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수산협력의 지향점과 협력사업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도출한 시사점과 국제수산협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체계 개선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권역별 수산업 특징과 한-아프리카 수산업협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고, 4장에서 다룬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체계 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표 1-4〉 연구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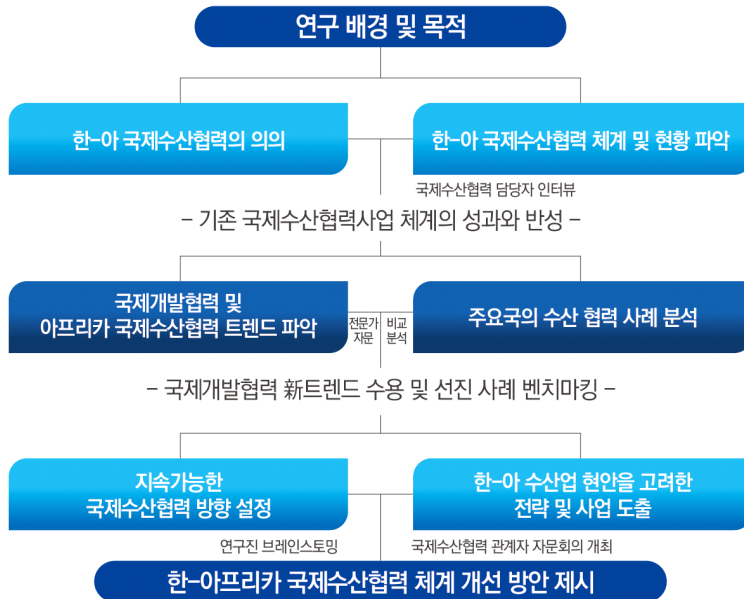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체계 및 현황	• 국제수산업협력 개요 • 대아프리카 수산업협력 현황 • 시사점
제3장 아프리카 수산업협력 트렌드 및 사례 분석	• 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트렌드 • 주요국의 수산업협력 사례 • 시사점
제4장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체계 개선 방안	• 한-아프리카 수산업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 •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사업 •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요약 및 결론 • 연구의 한계점 • 정책 제언

자료: 저자 작성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논리 보강을 위해 법률, 정책자료를 비롯하여 국내외 문헌, 통계자료를 활용한 시사점을 각 장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정책의 진단 및 점검, 신규 어젠다 발굴을 위해 아프리카 정부(알제리)와의 수산부문 협력 방안 회의 개최, 수산부문 ODA 시행기관의 담당자 자

문, 원양업계의 대아프리카 진출 수요조사 자문 등 관계기관의 다양한 전문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체계 및 현황

제1절 국제수산업협력의 개요

일반적으로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이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국제협력은 국가 간 및 국가와 국제기관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교류, 협력으로 정의되며, 그 유형은 유·무상 자본의 협력에서부터, 통상과 교역을 위한 협력, 기술이전과 인력 교류에 관한 협력, 사회·문화적 협력까지 포괄하고 있다.¹⁶⁾ 즉, 국제협력은 원조나 경제협력, 개발협력과 같은 특정 목적과 방식이 수반되는 세부적인 협력의 개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주제, 분야, 방식, 방법에 대한 개방성을 전제로 하여, 실질적 재원의 교류를 담보하지 않고 단순 교류활동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다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러한 개념적 범위를 고려할 때 국제수산업협력 정책적 의미는 수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상호 간 논의, 협의 등 교류활동을 총칭함과 동시에, 일반적 국제협력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기술, 인력, 사회, 문화의 영역이 수산업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6) 행정안전부(2009), p. 123.

1. 국제수산업 부문 법률 및 체계

1) 해양수산업 소관 법률 및 추진체계

(1) 법률 검토

수산업 정책에 있어 국제협력의 당위성은 다양한 유관 법률에 근거한다. 먼저 해양수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률인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은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제22조(남북간 해양수산업 협력) 등의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의 기본정책으로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수산업의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보다 구체적으로 수산업의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적 당위성을 명시한다. 동법 제5장은 ‘통일 대비 수산업·어촌정책과 국제협력’이라는 제목으로 통상정책, 국제협력, 수출진흥 등의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법률 조항으로 포함한다. 특히, 수산업·어촌분야 국제협력 내용을 ‘정보’, ‘수산업 인적·물적·기술적 자원’,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개발도상국 지원, 해외투자,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수산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된 법률은 「원양산업발전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양산업은 해외수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원양어업과 운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포함한 관련 사업을 포괄하며, 「원양산업발전법」은 이러한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외수역에서의 자원의 보존, 관리, 이용에 관한 규율을 정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은 국제기구와 지역수산관리기구를 ‘국제수산기구’로 정의하며, 조업활동이 이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을 명시한다. 한편, 동법의

제3장 ‘원양어업’ 제2절은 ‘국제협력과 연구개발’로 구성되며, 이에 해당하는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는 국제수산협력 이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수산기구, 외국 정부 또는 수산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섭, 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정보·기술·인력의 국제 교류, 기술의 국제표준화 등 조사, 연구, 기술협력, 국제학술대회 및 박람회, 외국인 선원 양성 및 교육 등 원양산업에 필요한 국제협력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외어장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의 관리규정을 국내법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국제기구와의 협력, 공조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수산물 수출, 수산자원, 양식산업 등의 수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의 유관 법률에서도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대한 내용으로, 해외시장으로의 수산식품 및 식문화의 진출이 주요 목적이며, 「수산자원관리법」 제4조(국제협력증진)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수산자원의 조사·연구·관리·조성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제63조를 통해 양식산업의 기술·인적 교류와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양식장 개발 등을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수산업 정책에 있어 국제협력은 연안 개발도상국으로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해외어장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확보 기반, 글로벌 수산 의제의 규범화, 국제기구와의 교류, 국내 수산물의 해외 진출과 시장 확보 등과 같이 다양한 목적하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2-1〉 수산분야 주요 법률과 국제협력 관련 조항 및 내용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장 해양개발 등 /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제21조(국제협력의 추진)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개발등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제43조(수산업·어촌의 통상정책 등) ①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업·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제44조(수산업·어촌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산업·어촌분야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개발·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3장 원양산업 /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업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내국인·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업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수산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장 총칙

제4조(국제협력증진)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자원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도 조사·연구·관리·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6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내 양식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식산업 관련 기술 교류, 인적 교류,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양식장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 원양 산업발전법 제1조, 제4조, 제18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8조; 수산 자원관리법 제4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3조

(2) 추진체계

해양수산부의 국제수산협력 업무는 수산정책실의 수산정책관과 해양정책실의 국제협력정책관의 업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수산정책관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원양어업 활성화 관련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국제협력정책관은 국제무대에서 국가 지위의 협상력을 요하는 협력업무와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및 산하 부서는 앞서 검토한 소관의 법률에 근거하여 수산부문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분야 ODA 사업은 해양정책실의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수산 ODA 사업의 수행체계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¹⁷⁾-사업실시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된다.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접수하는 수산 ODA 사업 수요는 일반적으로 수산정책실의 각 과에서 제출하거나 개별 시행기관¹⁸⁾에서 자체 발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거나 단발성 성격의 사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가 정책 방향과 불일치하는 문제도 존재한다.¹⁹⁾ 그러므로 부처 내·외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산 ODA 사업을 위한 방향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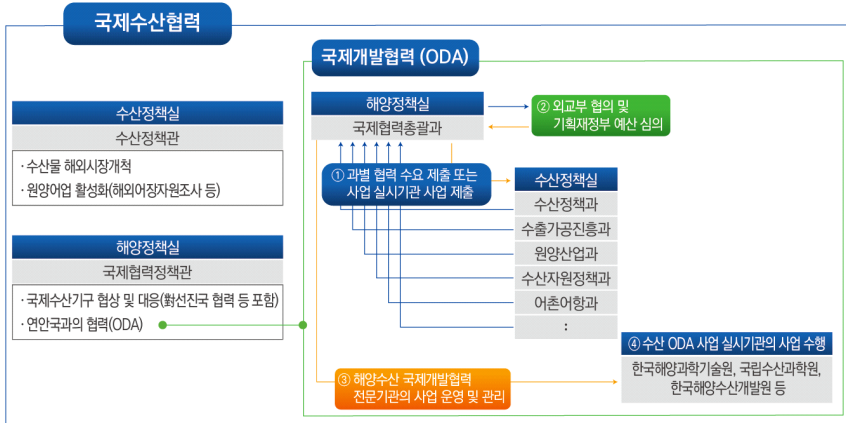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해양수산부 내에는 국제수산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는 존재하지만, 수산 ODA의 총괄적인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며,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세부법률과 담당부서에 관한 규정은 모호한 상황이다.

17)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은 2020년 10월에 지정되었으며, 지정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전문기관 지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및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18) 다른 부처와는 달리 수산업의 분야별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 분야별로 수산 ODA 사업 실시기관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19) 한덕훈 외(2021), p. 59.

〈그림 2-2〉 해양수산부의 국제수산협력 업무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적절한 국가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 목표, 정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본법률로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유무상의 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국제개발협력분야는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국내외 환경분석, 협력규모와 운용, 그리고 지역별·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단체 지원방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대외 여건변화, 개발협력사업의 추진구조, 수원국의 특성과 개발분야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체계적인 정책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주요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제5조(국가등의 책무)

-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랑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와 외교부 개발전략과의 소관이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평가, 정책조정 등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 중랑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사·의결이 수반되며, 정책을 이행하는 시행기관은 해당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지자체가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 추진체계는 총괄 및 조정을 담당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시행기관(각 관계부처·기관·지자체)의 3단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

〈표 2-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협력 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양자간	무상원조	• 물자 공여 • 현금 공여 • 프로젝트형 사업 • 기술협력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등)	한국국제협력단 및 관계 부처·청 등	외교부
	유상원조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자간	국제기구 분담금: UN 등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 출자금: 국제개발금융기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자료: 외교부, ODA추진·자원(검색일: 2024.6.17.)

한편,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동 법률을 근거로 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6조를 근거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제·개정 시에는 본 법률이 제시한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데, 이는 국가 전반의 국제협력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ODA 사업 추진에 있어 준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임을 시사한다.

2. 국제수산협력 주요 추진정책

국제협력에 관한 수산분야의 정책방향은 법정 기본계획과 추진사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에서는 6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을 제시하여, 국제규범을 통한 해양수산 의제 주도, 수산자원 협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

20) ODA KOREA, 우리나라 ODA(검색일: 2024.6.17.)

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의 협력, 통상 및 국제규범 대응체계, 해외어장 및 수산업 진출, IUU 어업 관리, 다자원조사업 확대, 기후변화 등 국제협력이 수반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추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2-4〉 국제수산업협력 주요 정책계획 반영 내용

〈해양수산업발전기본계획 국제협력 부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국제협력 부문〉

6월 국제협력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	
정책방향	한제(2020) → 미래(2030) 동북아 해역 내 해양생태계 및 생물, 수산자원 협력 미흡 → 러시아, 중국, 일본은 물론 북한까지 포괄한 해양생태계 협력체계 구축 국제 주요 환경 및 해사기구 아젠다 주도 미흡 → 국제 기후협력체계 및 IMO, PaCAAP 등 국제해양기구 적극 참여 및 선도적 대응 남북 간 해양협력 구체적인 부재 → 수산자원, 해양자원, 잠정수역 관리 등 남북 간 해양협력 강화
정책목표	정책과제
주요 정책과제	“K-해양수산”으로 국제사회 상생 견인 • 국제규범 등 해양수산 의제 주도 • 적극적 상생협력으로 국가위상 강화 균정한 해양안보로 해양경도 수호 • 해양경도 주권 수권적 권리 행사 강화 • 안보정안 확대 및 영안보안 강화 해양협력으로 동북아 번영에 기여 • 동북아 해역보전 협력 강화 • 남북 해양수산업의 지속 추진



자료: 해양수산부(2021b), p. 177; 해양수산부(2021a), p.195.

최근에는 〈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K-OEI)〉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2023년 제1회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2023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발표된 K-OEI는 크게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수산업 발전, 해양환경 보존, 해운·해사 역량 강화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지속가능 수산업 발전이 수산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은 간접적으로 관련된다.²¹⁾

21) 관계부처 합동(2024), p. 47, pp. 175-176.

한편,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대서양, 태평양 등의 공해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의 경우 국제협력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4년 1월에 수립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국제수산기구 참여·협력기반 강화’와 ‘연안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해외어장 진출 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는 등 내용의 많은 부분에서 국제협력과 연관된 정책을 포함한다. 이는 생산량 감소, 국제규범·조업규제 강화 등 원양산업이 직면한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조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개척, 국제규범 및 의제 주도, 네트워크 구축과 같이 국제협력 기반의 다양한 정책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국제협력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종합계획 비전 및 구성	비전: 지속가능한 원양산업 모범국가 도약 4대 추진전략(추진과제 수) 1.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2): 1-2. 국제수산기구 참여·협력 기반 강화 2. 안정적 선원 공급(3) 3. 해외어장 확보(2) : 3-1. 연안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3-2. 해외어장 진출 지원 4.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3)
국제협력 부문 주요 내용	국제수산기구 참여·협력 기반 강화 • 의제주도: 국제수산기구 국제규범(기후, 노동, 자원 평가·보존 등) 논의 대응 • 네트워크: 국제수산기구 의장단 진출 지원 및 공동행동 참여를 통한 협력 강화 • 전문인력: 국제규범 논의, 어업협상 분야 상시참여, 전문인력 육성 기반 마련, 연안국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ODA 확대: 태평양도서국 역량 강화, 미입어 어장보유국(아프리카) 협력사업 발굴 • 투자강화: ODA 사업-민간기업 연계 현지 교류 강화 및 어장확보 기반 마련 • 인적교류: 교환학생, 장학사업 등 수원국 인재양성 기여, 우호관계 강화, 해외어장 진출 지원 • 어장개척: 아프리카(기술전수, 장비지원 등), 북태평양(자원조사, 어구어법 개량) • 자원조사: 남대서양(FAO 41어장 조사), 러시아(자원량 감소 검토) 등

자료: 해양수산부(2024a), pp. 7-14

실질적인 수산분야 국제협력 정책은 다양한 국가사업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2024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국제수산협력 사업의 추진구조는 크게 국제협력정책관과 수산정책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정책실 소속인 국제협력정책관은 국제수산협력과 관련된 사업으로 통상무역협력과의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과, 국제협력총괄과의 ‘연안국과의 협력(ODA)’을, 수산정책실 소속의 수산정책관은 원양산업과의 ‘원양어업 활성화’와, 수출가공진흥과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이 수반되는 주요 추진정책은 수산물 수출시장 진출 및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공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안정적 어장 및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사업과 선원·여성어업인 등 교육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양식·가공·유통 등 수산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²⁾

〈표 2-3〉 해양수산부 국제수산협력 관련 주요 추진사업

구분	주요 내용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3-2.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①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 통상무역협력과 • 한-뉴 FTA 협정 근거, 수산물 교역촉진 및 협력강화를 위해 수산분야 학생 및 수산전문가 현지 연수, 직무교류, 공동연구 등 추진 ② 해외진출 지원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협력총괄과 • 국제 협상대응 회의 참석, 국제수산협상전문관 관리, 명예해양수산물 유지·관리, 해외투자 정보 조사, 원양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3-3. 연안국과의 협력(ODA) ①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국제협력총괄과 • 아시아, 태도국,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출신 해기사 후보생 대상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선실습 교육 훈련 지원 ② 키르기스스탄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 강화: 국제협력총괄과 • 이식쿨주 통지역의 양식장 활용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 구축 및 시범운영

22)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상의 내용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외 타부처 연계 사업, 혹은 연구기관, 대학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및 역량 강화 지원 ③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사업: 국제협력총괄과 • 현지 수산물물의 유통, 저장, 가공, 위생 시설 개선, 여성어업인 교육 지원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8-4.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① 경쟁력 강화: 수출가공진흥과 • 무역애로 해소(국제인증 취득, 해외 홍보·마케팅), 수출통합브랜드 운영 (K-Fish), 리스크 안전망 구축,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 ③ 해외시장 확대: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정책과 • 국제 박람회, 무역상담회, 무역지원센터 운영, 수산식품 해외 앵커숍, 수산물 통합마케팅,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 수산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해외 수산식품시장 진출 희망 기업 현지 투자 환경 탐색조사 등) 8-22. 원양어업 활성화 ① 해외어장 자원조사: 원양산업과 • 국제수산기구의 자원관리 보존조치 이행, 자원관리 보존조치 채택 위한 과 학조사, 시험연구 참여 업체 소요경비 지원,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 촉진 ③ 한·러 어업협정 이행: 원양산업과 • 한·러 어업협정 협상 개최로 해외 수산식량자원 확보 기반 마련, 조업 감독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러시아 감독선 경비 일부 지원, 안정 조업 기반확보

자료: 해양수산부(2024b), pp. 308-338, p. 892, pp. 1597-1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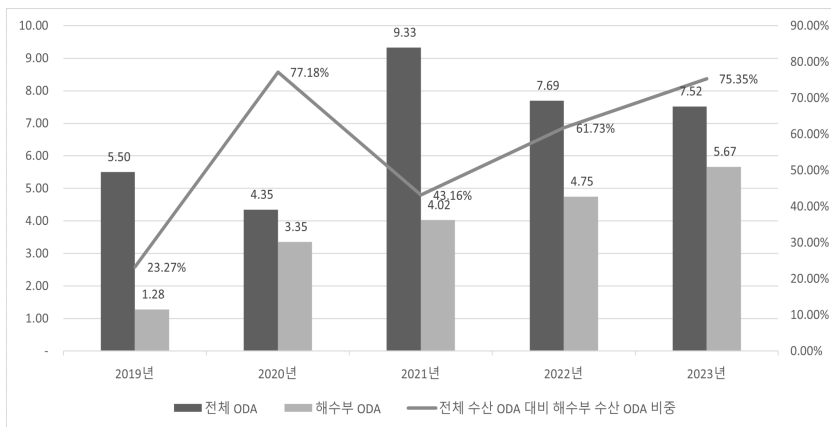
제2절 대아프리카 수산협력 현황

1.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 및 전략

1) 대아프리카 수산개발협력 현황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 우리나라 수산부문 ODA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6%로 나타났다. 이 중 56.1%가 해양수산부 사업²³⁾으로, 33.5%는 한국국제협력단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3년 우리나라 ODA 통계치(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부문 ODA 규모는 총 7.52백만 달러이며 이 중 5.67백만 달러(75.1%)가 해양수산부 사업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수산부문 ODA 사업의 8.7%를 수행하였으며, 그 규모는 0.65백만 달러로 집계된다.²⁴⁾

〈그림 2-5〉 최근 5년간 전체 수산분야 ODA 대비 해수부 수산분야 ODA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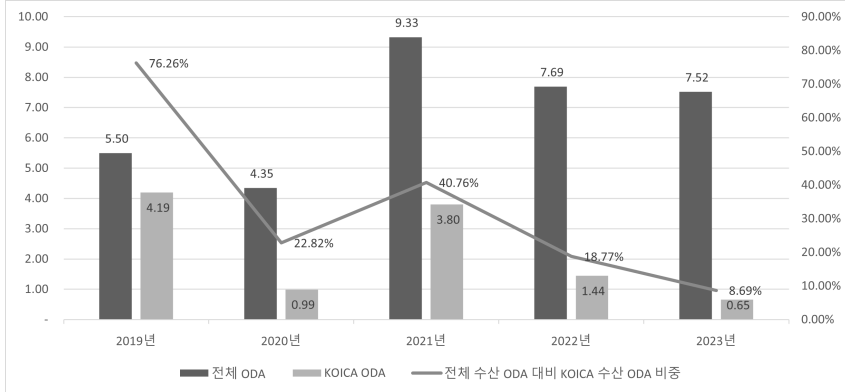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4.6.28.)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23) 2024년 확정액 기준 해양수산부 부처 ODA 사업 규모는 총 428.9억 원이며, 전체 ODA 규모 6조 2,629억 원의 약 0.7%를 차지한다. 총 46개의 무상원조 시행기관 중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에 이어 8번째로 규모가 큰 기관이다. 총사업 수는 40개로 사업별 평균 규모는 10.7억 원이다(관계부처 합동(2024), p.177, 179, pp. 183-186).

24)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4.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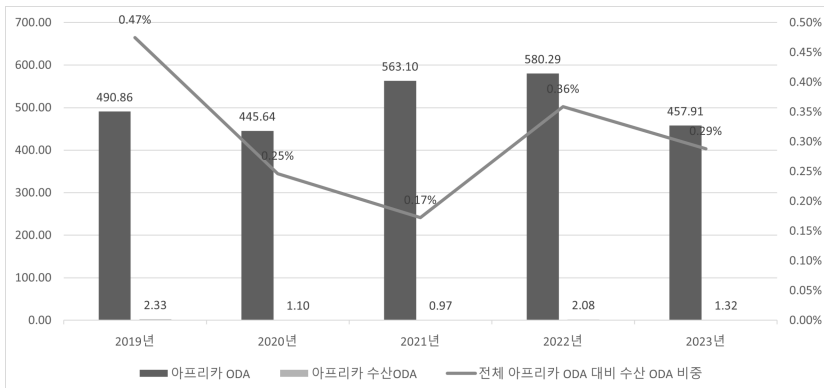
〈그림 2-6〉 최근 5년간 전체 수산분야 ODA 대비 한국국제협력단 수산분야 ODA 비중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4.6.28.)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국내 수산부문 ODA를 아프리카 권역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2023년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산 ODA 지원 규모는 1.32백만 달러이며, 이 중 해양 수산부는 전체의 79.1%에 해당하는 1.06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은 전체의 20.11%에 해당하는 0.27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⁵⁾

〈그림 2-7〉 최근 5년간 대아프리카 전체 ODA 대비 수산분야 ODA 비중



자료: ODA KOREA, ODA 통계(검색일: 2024.6.28.)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25) 위의 자료

한편, 대아프리카 ODA 규모(전 분야)에서 수산부문 ODA를 비교해보면,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당초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원조 규모를 전체 ODA와 대비하였을 때, 2019년 26.4%, 2020년 24.4%, 2021년 25.0%, 2022년 26.1%, 2023년(잠정치) 19.9%를 기록하는 등 평균적으로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아프리카 ODA 규모에서 수산분야 ODA 비중은 5년 평균 0.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²⁶⁾

2)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전략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표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은 지난 2차 종합기본계획하에 추진된 정책의 주요 성과로 아프리카의 지원 비중 확대를 제시하였으며²⁷⁾, 2023년에 지역전략으로는 첫 번째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공표하기도 하였다.²⁸⁾ 아프리카는 13억 인구와 풍부한 청년인력,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투자와 시장의 잠재성이 높은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은 세부전략 부재, 현지네트워킹, 접근성 등의 한계로 단발적이고 소규모 사업에 머물러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은 지속가능 발전 의제 달성을 위한 지원, 한국의 비교우위와 협력수요를 바탕으로 한 중점 지원분야 선정, ODA 중심 대외정책 추진 등을 토대로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부전략으로는 사회·환경적 미래도약 기반 마련과, 보건·식량·난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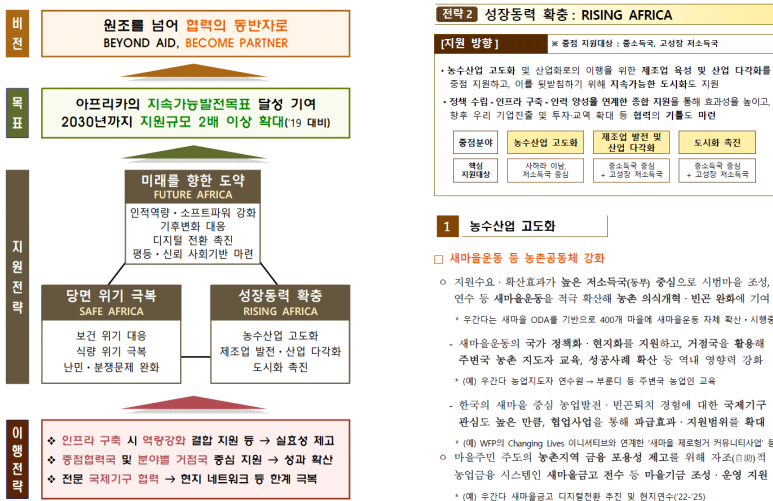
26) ODA KOREA, ODA 통계-지역별 지원(검색일: 2024.7.18.)

27) 아프리카 ODA 비중 추이는 ('15)23.0%, ('16)25.9%, ('17)24.4%, ('18)27.0%, ('19)26.4%로 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3.4%p 증가하였다(관계부처 합동(2021), p. 2).

28)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은 향후 추진 계획으로 국제개발협력 세부추진전략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항목은 지역(아시아, 아프리카 등)과 분야(ICT, 인력 등)로 구분된다(관계부처합동(2021), p. 27).

당면 위기 극복,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 등이 제시되었다.²⁹⁾ 빈곤·식량 문제 해결과 사회 경제적 성장 기반 확보가 중요한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에 있어 1차산업과 연계한 내용들이 상당수 제시되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산분야는 농산업과 이행 기반 구축의 일환인 ‘수산물 냉동창고 건설 및 냉동탑차 보급(세네갈)’과 여성의 지위 제고를 위한 ‘여성어업인 가공·유통 역량 강화(가나)’만이 언급되고 있다.

〈그림 2-8〉 관계부처 합동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및 1차산업 연계방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p. 5, 9

본 전략은 범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전반의 협력방안을 다루는 상위계획이라는 점에서 수산업의 연계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서양·인도양의 대규모 연안을 보유한 아프리카의 지리적 이점과 식량, 영양공급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산물 가치와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수산업의 선진화된 역량을 연계·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29) 관계부처 합동(2023), p. 5.

2. 대아프리카 국제수산업 협력 추진정책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분야 정책은 ‘해양수산 ODA’와 ‘해외어장 자원조사’로 구분된다. 2023년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리스트에 따르면 3개국(세네갈, 모잠비크, 가나)에 대한 대아프리카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림 2-9〉 2023년 아프리카 대상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리스트

참고1		‘23년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리스트			
		(단위 : 억원)			
		사업명	총 사업비	‘23년	사업기간
20	아 프 리 카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역량강화 사업	11	4	‘21~23
21		(모잠비크)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50	13	‘20~24
22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유통 역량강화 사업(신규)	40	10	‘23~26

주: 2023년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 사업 30개 중 아프리카 대상 사업(3개)을 발췌함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2.2.)(검색일: 2024.6.17.)

먼저 세네갈의 ‘수산해양경제부 역량강화 사업’은 세네갈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산교육과 기술 및 정책을 전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경대학교 해외어업협력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모잠비크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촌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FAO와 연계하여 추진되며, 가나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사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한편 2023년에 책정된 해양수산 ODA 사업 총 예산의 권역별 비중은 아시아 54.0%, 태평양도서국 21.6%에 이어 아프리카는 9.2%로 집계되었다.³⁰⁾

한편, 선원교육분야에서도 아프리카로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해기교육체제와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30) 2023년 해양수산 ODA 사업 총예산 287.3억 원 중 아시아는 155억 원, 태평양도서국 62억 원, 아프리카 26.5억 원, 중남미 2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2.2.)(검색일: 2024.6.17.)).

선진화된 승선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은 당초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탄자니아, 케냐를 포함하였다. 2023년도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의 실습생은 총 40명으로 이 중 아프리카 실습생은 탄자니아 4명, 케냐 5명이 해당한다.³¹⁾ 본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가 담당하는 연안국과의 협력(ODA)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시행하며, 기초안전교육, 선박 친숙화 과정, 승선실습 훈련, 산업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0〉 최근 10년간 해외어장자원조사 추진현황

조사기간	조사선	업종	조사수역	대상어종
‘14.5.1~7.31	상업어선 1척	트롤	서부아프리카 공해	전갱이 등
‘14.11~‘15.3	상업어선 1척	저연승	CCAMLR 58,48	이빨고기
‘15.5~9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1해구	VME 영향평가
‘15.12~16.3	상업어선 1척	저연승	CCAMLR 58.4.1/58.4.2	이빨고기
‘15.12~‘16.5	상업어선 1척	트롤	CCAMLR 48.1	크릴
‘17.5~‘17.11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77/61 해구	오징어
‘17.11~‘18.3	상업어선 1척	저연승	CCAMLR 88.3	이빨고기
‘18.10~‘18.12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87	오징어
‘18.10~‘19.1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87	오징어
‘19.9~‘19.12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87	오징어
‘19.9~‘19.12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87	오징어
‘20.8~20.12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87	오징어
‘20.8~20.10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1	화살오징어 민대구
‘21.6~21.9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1	오징어
‘21.7.~21.9	상업어선 1척	채낚기	FAO 61	빨강오징어
‘22.5.~22.11	상업어선 2척	채낚기	FAO 61	빨강오징어
‘23.5~12	상업어선 3척	트롤	러시아 EEZ	명태, 대구
‘23.7~10	상업어선 33척	채낚기	러시아 연해주수역	오징어
‘23.9~12	상업어선 1척	정치망	서부아프리카 연안	황민어, 서대 등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18.)(검색일: 2024.6.17.)

원양산업과에서 주관하는 해외어장자원조사 사업은 2018년 이후 FAO 87, 41, 61해구를 중심으로 오징어 조사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2023년 9월부터는 기니비사우를 중심으로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자원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수역에서는 남획 위험이 있는 어업(예. 저층 트롤 어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정치망과 같은 전통 어법은 장려하는 것으로

31) 해사신문(2023.5.10.)(검색일: 2024.6.17.)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본 사업을 통해 해당 수역에 국내 정치망 어선 1척을 투입하였다. 대상 어종은 민어류, 조기, 능성어, 서대류, 왕새우 등이 해당된다. 본 사업은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과 민간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민·관 합동 자원조사가 병행된다. 한편 동 사업은 2014년 5월 서부 아프리카 공해로 트롤 어선이 투입된 이후 아프리카 해역 진출은 2023년을 기점으로 재개되었다.³²⁾

3. 기타 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사례

수산분야 아프리카 협력의 필요성은 연구개발 부문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특히, 해외어장 개발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방편으로서 아프리카 연안수역의 조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아프리카 자국내 어업을 통한 소득 창출 및 수산물 소비시장의 활성화 도모, 안정적 식량 공급원 확보 등의 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는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³³⁾ 더불어, 2009년 11월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공여국의 지위를 갖추으로써 국제협력체계가 공적 개발원조사업의 발굴·이행의 차원에서도 접근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내 수산분야의 대아프리카 협력이 정례화되고 폭넓게 논의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³⁴⁾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족된 수산 연구개발분야의 국제협력체계라 할 수 있다. KORAFF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는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분야에서의 아프리카 연안국과 지속적 발전 모색을 위한 의제 및 사업 발굴, 인적 네트워크 공고화

3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18.)(검색일: 2024.6.17.)

33) 홍현표(2010), pp. 5-12.

34) 수산인신문(2010.12.6.)(검색일: 2024.6.17.)

등 상호협력 기반 확립과 해외어장 확보와 같은 국내 수산업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024년을 기점으로 10회째를 맞는 KORAFF는 현재까지 아프리카 연안 8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가나, 세네갈, 라스팔마스,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알제리)에서 국제기구, 산·학·연·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과거 서부 아프리카 중심에서 현재는 동부, 북부까지 아프리카 연안 전역으로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표 2-4〉 한·아프리카 수산포럼 심포지엄 개최 현황 및 주요 내용

개최지 / 연도	주요 내용
1차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2010.8.)	- 주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산자원, 수산경제, 어촌사회 등 - 해외네트워크: 현지기업(Capfish.cc.), University of Cape Town, University of Western Cape - 국내기관: KMI, 국립수산물연구원, 한국원양산업협회 - 주요성과: 남아프리카관세동맹 권역 수산 기초정보 공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수산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수산포럼 창립 기반
2차 대한민국 서울 (2010.12.)	- 주제: 한·아프리카 수산포럼의 창립회의, 한·아프리카 수산협력 방안과 경제적 효과, 가나·앙골라·남아프리카공화국 수산업 실태와 협력 사업 제안 - 해외네트워크: 가나 수산청 수산연구소, 앙골라 수산청, 남아프리카공화국 다랑어 협회, University of Western Cape, University of Washington - 국내기관: KMI, 농림수산물부, 국립수산물연구원, KOICA,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어항협회, 고려대학교, 부경대학교 - 주요성과: 국제기구-KORAFF 공동사업 모색, 해외네트워크 협조체제 구축, 정부 대외 수산협력사업 추진 기반 마련, 민간 외교채널 구축 등
3차 앙골라 루안다 (2011.9.)	- 주제: 앙골라 전쟁이 종묘방류 사업, 콩고 호수 어업 개발 계획, 가나 수산업 및 기니 수산자원 관리, 아프리카에서의 한국의 글로벌 의지 등 - 해외네트워크: 앙골라 농림수산물부, 세네갈 수산국, 가나 식량농업부, 현지기업 (Capfish.cc.), University of Manouba - 국내기관: KMI, 농림수산물부, 부경대학교, 한국원양산업협회 - 주요성과: 현지 개발사업의 국내 지원 검토, KMI-앙골라 수산진흥원 MOU 체결, 중서부 아프리카 수산협력 거점 확보, 국내 원양산업 연계방안 검토 등

4차 가나 아크라 (2012.9.)	• 주제: 서아프리카 수산자원 현황, 가나·기니·세네갈 수산업 현황과 국제협력 제안 • 해외네트워크: 가나 식량농업부 연구소, 기니 연구소, 세네갈 해양수산부, University of Cape Coast, University of Portsmouth • 국내기관: KMI, 주가나 한국대사관, 부경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 주요성과: KMI-가나 수산위원회 MOU 체결, 중서부 아프리카 협력 거점 확대, 국가별 수산협력 수요 확인, 주가나 한국대사관 연계 기반 확보
5차 세네갈 다카 (2013.10.)	• 주제: 서아프리카 연안조업 규제, 기니 수산업 제도 추진체계, 양식분야 국제 협력 방안, 세네갈 수산분야 협력 제안 등 • 해외네트워크: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기니 국립수산과학센터, 앙골라 국립 수산연구소, 세네갈 수산청 및 수산감시청, 라스팔마스 대학, FAO 등 • 국내기관: KMI, 해양수산부, 주세네갈 한국대사관, 부경대학교, 한국수산 자원관리공단,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 주요성과: 어업 및 자원관리 중요성 인식에 대한 선언문(KORAFF 2013 Senegal Declaration) 채택, 세네갈 농업연구소(ISRA) MOU 체결, 아프리카 수산 전문가 네트워크 양적 확대 등
6차 라스팔마스 (2014.7.)	• 주제: 아프리카 소규모 어업의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 세네갈 바다목장 사업, 서부 아프리카 IUU 어업 관리와 정책 등 • 해외네트워크: FAO, 세계은행, OECD, 환경정의재단, 아프리카 국가(세네갈, 기니, 가나, 남아공, 기니비사우, 탄자니아 등),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대학, 이집트 알렉산더 대학, 모로코 아가디르 대학 • 국내기관: KMI, 해양수산부, 주라스팔마스 한국 영사관, 부경대학교, 해양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등 • 주요성과: 8개국 20여 명 수산 전문가 참여, 아프리카 소규모 어업 쟁점 논의를 통한 협력사업 방향 모색, KORAFF 양적 확대(17개국, 300여 명 회원)
7차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2019.7.)	• 주제: 코트디부아르 어업 및 양식업 현황 및 연구추진 현황, 서아프리카 어업 및 양식업 지속가능한 관리 등 • 해외네트워크: 코트디부아르 동물수산자원부 및 연구기관, 세네갈 해양연구 센터, 어업보호감시국 등 • 국내기관: KMI, 주코트디부아르 한국대사관, 부경대학교 • 주요성과: 아프리카 연안국 협력네트워크 다양화, 수산 관련 산업·연구·교육·수요 기초자료 확보, 소규모 생계형 영세어업 공동연구 필요성 및 안건 발굴 등

8차 대한민국 서울 (2021.10.)	• 주제: 아프리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자협력 방안, 서부 아프리카 지역 수산 거버넌스 개선, IUU 어업 개선을 위한 활동 등 • 해외네트워크: 가나 수산부, 세네갈 국립해양대학, ATLAFCO, FAO, FCWC-CPCO, 세계은행 등 • 국내기관: KMI(수산연구본부) • 주요성과: 국가별 협력사업 제안 구체화(한-아프리카 협력 플랫폼 제도화,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 연구협력, 양식 기술개발, 수산부문 교육·훈련 역량 강화, 조업 감시 체계 지원 등)
9차 탄자니아 잔지바르 (2023.6.)	• 주제: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수산분야 변화와 도전 및 협력방안, 탄자니아 수산업의 미래, 탄자니아 EEZ 내 IUU 어업 문제, 동부 아프리카 수산협력 방안 • 해외네트워크: 탄자니아 해양수산부, 잔지바르청색경제 수산부, 심해어업청, 탄자니아 양식협회, 어선어업 수산가공업협회, 탄자니아 축수산부, 주한 탄자니아대사관, 라스팔마스 대학 등 • 국내기관: KMI(수산연구본부, 어촌연구부), 국립수산물과학원 • 주요성과: KORAFF 최초 동부 아프리카 지역 심포지엄 개최로 동아프리카 수산부문 협력기반 마련, 동부 아프리카 수산 현황에 관한 연구 및 기초자료 확보
10차 알제리 알제 (2024.4.)	• 주제: 한-알제리 수산협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알제리 수산교육 현황과 특징, 알제리 수산업 강점과 수출진흥 전략 등 • 해외네트워크: 알제리 수산부, 알제리 국립수산물과학원(CNRDPA), FAO 등 • 국내기관: KMI, 국립수산물과학원, KOICA • 주요성과: KORAFF 최초 북부 아프리카 지역 심포지엄 개최로 북부 아프리카 수산부문 협력 기반 마련, 수산 ODA 수요 발굴 및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자료

제3절 시사점

제2장에서는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산업의 분야별 법률을 비롯하여, 국제수산업협력 추진정책, 연구개발 부문 아프리카 협력 현황, 범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등 수산업과 국제협력, 아프리카와 연계된 주요 지표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에 있어 국제협력 정책의 당위성은 다양한 유관 법률에 근거한다.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여러 법률에서 국제협력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산분야 법률에서 국제협력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외 해역을 터전으로 산업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에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국제협력 관련 조항이 수산업의 여러 구성 산업(원양, 양식, 식품, 자원 등)으로 구분되어 해당 분야의 관리와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별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 국제수산업협력 정책 추진 체계가 분산된 구조임을 시사한다. 특히, 수산 ODA 사업은 수요 발생처가 다양하지만, 사업의 방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전략의 부재와 전략 수립-실행-평가·관리의 주체가 모호하여, 사업 중복성과 사업 지속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수산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방안 발굴 및 검토가 요구된다. 2023년 2월 정부는 권역으로는 첫 번째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공표한 바 있다. 본 전략은 1차산업을 주제로 한 개발협력 방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에, 향후 수산분야의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에 있어 정책적 당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수

산분야는 2개의 단위사업만이 언급되고 있다. 해당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 아프리카 협력 전반을 다루는 상위 계획이므로, 수산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물류 체인, 선원교육체계 등 선진화된 국내 수산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방안과 세계적으로 규범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습득한 국내 수산자원관리 노하우, 그리고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안으로 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할로로서 수산업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프리카 수산협력·개발을 위한 전문화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수산분야의 실질적인 대아프리카 협력정책은 국가개발협력과 해외어장조사의 이원화된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개발협력분야는 국제협력총괄과 주관으로 정부 관료 초청 연수, 선원의 승선 실습, 인프라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원양산업과는 해외어장의 개발·확보를 위한 해외어장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학 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 협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관한 전략이 수립되어 중장기적 목표와 세부추진계획, 중점협력 분야 등이 선정된 것에 반해, 국제수산협력분야는 세부 추진사업을 통해 주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프리카 권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진출계획과 협력전략은 부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넷째, 연구개발 분야와의 국제협력 정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기관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심포지엄은 비교적 정보개방이 제한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협력 수요에 대한 점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협력 노력이 보다 가시화되고 실증화되기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와 협력 수요를 종합하고, 정책적으로 논의·검토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03

아프리카 수산협력 트렌드 및 사례 분석

제1절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트렌드

1.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³⁵⁾

1) 코로나19 이후 국제개발협력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증가 등 연이은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성장 기반과 경제·사회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³⁶⁾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경제여건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2022년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하여 2,04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총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36%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³⁷⁾ 또한, 지진, 역내 분쟁 등 예

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선임연구위원(2024.4.25., 영상회의) 및 한국개발연구원(2023), pp. 1-30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6) 정우현 외(2022), p.133.

37) 2022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난민, 우크라이나, 나머지 ODA 예산은 증가하였다(OECD(2023a), p. 3).

상치 못한 재난은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를 확대시켰으며³⁸⁾, 이는 국제개발협력 방식의 변화를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³⁹⁾

위기에 따른 변화도 포착된다. 과거 글로벌 위기가 금융 등 거시경제에 집중되었다면, 현재는 거시경제와 함께 분쟁·기후변화·감염병 등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이다.⁴⁰⁾ 이에 따라 개발협력 모델은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생활 향상, 빈곤 감소 등의 전통적인 패러다임과 분쟁, 난민, 기후변화, 전염병, 생물다양성 등의 글로벌 과제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국제사회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협력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⁴¹⁾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에 있어 정부, 민간(기업, NGO 등),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글로벌 파트너십도 중요한 요건이자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예를 들면, 다자개발은행이 어업관리와 같은 초국가협력에 강점을 보이고 있고, 전통적인 개발협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삼각협력⁴²⁾ 등의 국제적 연대가 중요해졌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파트너십을 통해 자국의 실태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규범 변화와 지원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2023년 9월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선도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으며⁴³⁾ 11월 COP 28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기금’을 공식 출범⁴⁴⁾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38) 양자간 ODA에서 인도주의 및 식량원조는 2010~2012년 평균 10%에서 2019~2021년 15.2%로 증가하였다(OECD(2023b), p. 104).

39) OECD(2023a), pp. 1-28.

40) 강선주(2021), p. 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6.30.)(검색일: 2024.6.26.)

41) 이주영(2023), p. 4; 권율(2022), p. 69.

42) 삼각협력은 “선진 공여국 또는 다자기구가 두 개국 이상 개발도상국 간의 남남 협력으로 개발 협력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복희(2020), pp. 1-4;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홈페이지(검색일: 2024.6.28.)).

43)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의 강화된 기후행동(ambition), 기업·도시·지역·금융기관 등 신뢰성 있는 행동(Credibility),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행(Implementation) 등 세 가지 가속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선도적인 공약을 언급하였다(이주영(2023), pp. 8-11).

44) IMPACT ON(2023.12.1.)(검색일: 2024.4.26.)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정책 동향

1) 국내 국제개발협력 정책 기조

우리 정부는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등 아프리카 관련 대외전략을 발표하고, 이들 전략의 목표 달성과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ODA를 핵심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⁴⁵⁾ 2024년 6월에 발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는 대아프리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에서도 ODA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 계획(2021~2025)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비전으로, ODA 정책 방향에 있어서 ‘지속가능개발의제 5P⁴⁶⁾ 이행 방안 구체화를 통한 글로벌 가치실현’과,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국익 창출’, ‘초국경 이슈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내외 ODA 주체 간 협력과 연대 구축’을 제시하였다. 2022년 6월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비전인 ‘세계 10위권의 ODA 국가로 도약’이 공표되었는데, 국정과제인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① 전략적 ODA 추진, ②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③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 ④ 추진방식 선진화가 제시되었다.⁴⁷⁾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ODA 규모 확대와 사업의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6조 7,972억

45) 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의 비전 중 하나인 ‘번영’을 이행하기 위해 ODA 규모 확대 및 기여외교 강화를 발표하였으며,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서는 정부의 주요 대외정책을 ODA 차원에서 구현·지원함을 밝혔다(대한민국정부(2023), p. 6; 관계부처 합동(2023), p. 4).

46) 5P는 People(사람), Peace(평화), Prosperity(번영), Planet(지구), Partnership(파트너십)을 의미한다.

4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6.30.)(검색일: 2024.6.26.)

원을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으며⁴⁸⁾, 인도적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을 중심으로 확대 편성함을 발표하였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관행적 사업,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조정되고 대형사업에 재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규모가 커진 만큼 ODA 추진체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의 발굴·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ODA혁신 로드맵’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⁴⁹⁾

2) 주요 국제기구 정책 기초

(1) 세계은행(World Bank)⁵⁰⁾

세계은행이 2020년에 발표한 ‘World Bank Outlook 2050’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과 복원력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니셔티브다. 이는 경제발전을 기후행동과 연결하고자 상·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수립된 전략으로,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문별로 이행했던 소규모, 점진적 행동 경향을 반성하는 기초가 반영되어 있다.

해당 전략은 인구, 빈곤, 도시화, 디지털화 부문의 미래를 예측한 후, 장기적으로 기후 목표를 통합하기 위한 거시경제, 국가 예산 및 지출, 금융부문 규제 및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우선순위는 8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수산업은 7번째 청색경제(Blue Economy)에서 다뤄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위해 2018년에 PROBLUE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PROBLUE는 약 50억 달러 규모의 다자기부 신탁기금으로 운영되며, 2020년까지 60개 이상의 국가와의 협력프

48) 정부 예산요구 규모는 한국은행 출자금 등을 제외할 경우 6조 4,947.8억 원이며, 지자체 예산 60.8억 원을 포함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6.26.)(검색일: 2024.6.26.)).

4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6.26.)(검색일: 2024.6.26.)

50) World Bank(2020), pp. 11-75.

로그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업관리 개선, 해양오염관리, 해양 부문의 지속가능성, 해양경관관리 등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상 어업 분야에서는 자원 남획을 줄이고 양식업은 촉진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월경적 협력체제가 요구되는 어업관리를 대규모의 국가 간,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지역 어업프로그램, 남서 인도양 어업 프로그램, 서아프리카 연안지역 관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향후, 세계은행은 어업·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어류 사료 원료 연구, 어선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 아프리카개발은행⁵¹⁾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은 아프리카 대륙이 당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THE TEN-YEAR STRATEGY 2024-2033’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제·사회·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 대응을 위해 수립되었다.

AfDB의 전략은 포괄적인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제 축진을 목표로 하며, 아프리카 연합(AU: Africa Union)의 비전⁵²⁾에 기초한 “변영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이 있고 통합된 아프리카”를 비전으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5가지 우선순위(High 5)로는 에너지 접근성 향상, 식량 안보 강화, 산업화 촉진, 아프리카 통합, 삶의 질 향상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있어 민간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며, 공급망 참여기업, 여성과 청년이 주도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중시한다.

51)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2024), pp. 1-69.

52) AfDB의 목표는 아프리카 연합의 어젠다 2063(African Union's Agenda 2063)으로의 모멘텀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 어젠다는 아프리카의 포용적인 사회 및 경제개발, 대륙 및 지역 통합, 민주적 거버넌스, 평화 및 안보를 우선시하여 세계 무대에서의 재편을 목표로 한다(African Union 홈페이지(검색일: 2024.7.2.)).

AfDB는 제시한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출처의 자원을 동원하고, 특히 민간부문 금융 확대 등 자금조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투자 부문 우선순위는 양성평등 촉진, 아프리카의 청년, 기후변화 적응, 취약 국가(내륙 및 소외 지역) 지원 및 복원력 구축, 경제 거버넌스 강화 순이다.

(3) OECD

개발도상국 ODA를 논의하는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기구 중 하나로,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DAC 회원국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DAC는 ODA 수원 대상국을 3년 주기로 선정하고, 회원국의 ODA 규모를 통계 데이터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 2023년 DAC 회원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양자 간 순 ODA는 총 420억 달러로, 2022년에 비해 실질 기준으로 2% 증가했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순 ODA는 360억 달러로 실질 기준 5% 증가했다.⁵³⁾

2021~2022년 해양경제 ODA⁵⁴⁾ 지원규모가 큰 상위 3개국(기관)은 일본, 프랑스,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로, 상위 10개국(기관) 중 일본을 제외한 해양경제 ODA 제공 국가(기관)는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ODA의 지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DAC 회원국의 해양경제 ODA는 성평등(42%), 기후변화 적응(45%), 기후변화 완화(26%), 생물 다양성(39%) 정책 목표와 연관성을 나타냈다. 2022년에 플라스틱 오염 억제 ODA 예산이 2021년 11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39%가 급증하였다.⁵⁵⁾

53) OEC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검색일: 2024.6.28.)

54) OECD는 해양경제 ODA를 3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해양경제를 위한 ODA'는 해양 기반 산업 및 해양 생태계를 지원하는 ODA로, 명시적인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아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ODA'는 해양경제를 위한 ODA의 일부로, 해양 보전 활동, 해양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육상 기인 해양오염 감소를 위한 ODA'는 육상의 폐수처리,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와 같이 해양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원하는 ODA가 있다(OECD(2022), p. 22).

(4) 유엔식량농업기구⁵⁶⁾

수산분야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대표적 국제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아프리카 수산업에 대해 양식 생산량 확대 등 전반적으로 발전추세로 평가하나 지역 간 국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식업의 경우, 이집트 및 나이지리아와 같은 주요 생산국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14.5%의 성장세를 보였다.

FAO는 수산업과 관련하여 현재 아프리카가 직면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우선, 일부 관행을 기반으로 한 어업활동이 남획 및 망그로브숲 파괴와 같은 환경 및 수산자원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수산업 발전이 해당 지역과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상황을 진단,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 부적절한 법 집행 등 거버넌스 문제, 불법어업 성행, 기후변화 대응의 취약성 등이 제시되었다.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자원 모니터링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FAO는 이러한 아프리카 수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①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 구현, 수산업과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역량 강화), ② 수산업 거버넌스에 성평등적 참여기반 확립(지속가능개발목표)이라는 두 가지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FAO는 아프리카 수산업에 대해 지속가능성, 공평한 이익 분배를 중대한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55) OECD(2024), pp. 2-7.

56) FAO(2022), pp. 1-225.

제2절 주요국의 국제수산협력 사례

1. 미국

미국 수산부문 국제협력정책의 추진구조는 미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미 해양대기청 수산국(NOAA Fisherie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Fisheries)의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USAID는 미 국무부 산하의 독립된 연방정부기관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거버넌스’, ‘인도적 원조’, ‘분쟁예방 및 안정화’, ‘국제보건’, ‘경제성장과 협력, 혁신’, ‘자연환경의 회복과 식량안보’ 등과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주관한다. 수산분야에 관한 대외협력 기조는 어업과 양식어업의 건전하고 효과적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수익성 확보, 사회적 보장체계 구축 등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식량안보 및 빈곤개선 기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적응력 확보와 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 거버넌스 개선 및 통합적 관리체계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⁵⁷⁾

아프리카 수산업에 대해서는 연안국 중심의 소규모 전통어업, 내륙국 내 수면어업, 북서부 및 남동부 아프리카 연안의 일부 규모화된 생산 기반으로 권역별 특성을 구분하고, 지역민의 경제적 이윤 창출, 생계유지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 기반이라는 점에서 산업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어류는 아프리카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에 있어 평균 비중이 21%에 해당하고, 4억여 명 인구의 단백질 공급이 가능하기에 영양 및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도 수산업을 지속적인 지원·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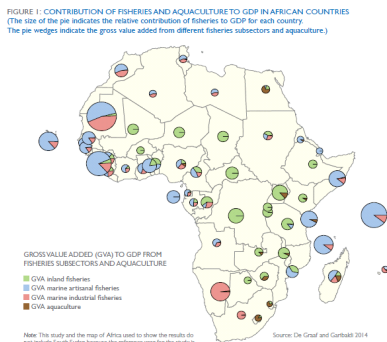
57) USAID(2013), p. viii.

58) USAID(2018), pp. 1-21.

이처럼 아프리카에서의 수산업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전문적인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자원관리 한계 및 생산량 감소, 아프리카 권역 내 수산물 공급 제한, 수산분야의 늦은 발전 속도 등은 여전히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⁵⁹⁾ USAID는 아프리카 수산업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관리, 교육, 공동조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분야의 제도,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전후방 혁신·인프라, 투명성·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정책체계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⁶⁰⁾

〈그림 3-1〉 USAID 수산분야 아프리카 개발협력력을 위한 기초분석 내용

〈아프리카 권역별 수산업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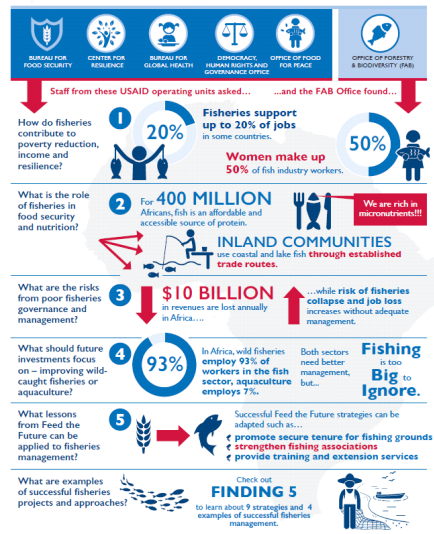
fishers compared to official figures of one million. In Guinea, the actual contribution of small-scale fisheries to gross domestic product (GDP) was six times greater than official estimates (Behabib et al. 2015d).

A recent analysis from the World Bank found that poor management of global marine fisheries has led to their overexploitation and substantial losses in fisheries revenues with annual losses estimated at \$86 billion globally and \$10 billion in Africa. The two world regions that suffer the greatest economic losses are Africa and Asia. Fisheries sector reforms that transition fisheries management towards

greater sustainability have the potential to provide access to this lost revenue and can benefit highly vulnerable coastal communities (World Bank 2017).

In a 2014 study, "The Value of African Fisheries," researchers with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estimated the value added by the fisheries and aquaculture sectors to be more than \$24 billion in 2011 (De Graaf and Garibaldi 2014). Marine small-scale fisheries contributed the most value (\$8.1 billion or 34 percent) among the various fisheries sectors, followed by marine industrial fisheries (\$6.8 billion or

〈아프리카 수산업의 주요 기능과 현황〉



자료: USAID(2018), p. 4, 6

2024년 기준 USAID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산분야 아프리카 협력사업으로는 가나 수산업 회복 활동(Ghana Fisheries Recovery Activity,

59) USAID(2013), p. 9, 17, 26.

60) USAID(2018), p. 16.

2021-2026)⁶¹⁾이 있으며, 이 밖에도 말라위 호수를 중심으로 한 수산자원 회복 프로젝트(Restoring Fisheries for Sustainable Livelihoods in Lake Malawi, 2019-2024)⁶²⁾, 세네갈을 대상으로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 바다회복 프로젝트(Dekkal Geej, 2019-2024) 등이 추진되고 있다.⁶³⁾ 상기 사업은 모두 앞서 USAID가 아프리카 수산업 개발 요소로 언급하였던, 어업분야 생산성 회복, 자원관리, 불법어업 근절, 수산업 성장 기반 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NOAA Fisheries는 미 상무부 산하 NOAA(해양대기청) 소속기관으로 미국의 수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국이라 할 수 있다. NOAA Fisheries는 수산분야의 다자·양자 통상 협정, 수산물 국내외 무역(공급망) 관리, 국제수산관리 협력 및 규범화 등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부문에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글로벌 수산자원 모니터링·감독·감시, 어족자원 보호 및 혼획 문제 개선, 수산 거버넌스 확립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IUU 어업의 국제규범화를 촉진하고, 국가별 보고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합의 이행, 관련 수산물의 수입금지 등의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⁶⁴⁾

이와 같은 기초하에 NOAA Fisheries는 아프리카 권역을 대상으로 감시 체계 확립, 자원보존,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가나,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연안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동아프리카의 경우 모잠비크에서 주변 연안국으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협력 및 지원내용으로는 아프리카 연안국의 실효적 자원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 체계 구축 등 연구개발 지원, 국가별 거버넌스 및 관리역량 강화와 어업 공동체와의 협력

61) USAID(2024), pp. 1-2.

62) USAID(2024.2.23.)(검색일: 2024.6.17.)

63) USAID(2020), p. 1.

64) NOAA Fisheries(검색일: 2024.6.17.)

지원, 아프리카 해역의 멸종보호종 보존, 기타 어업인 및 어촌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NOAA Fisheries 아프리카 협력사업

권역 및 국가	주요 내용
서아프리카 (6개국)	- 사업명: West Africa Task Force – Fisheries Intelligence and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Support in West Africa (서아프리카 전문위원회: 서아프리카 어업 정보 및 모니터링, 통제, 감시지원) - 국가: 베냉, 코트디부아르,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토고 - 주요 내용: 불법어업 개선, 어업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아프리카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교육훈련, 장비, 제도 및 기술적 지원
가나	- 사업명: Enhancing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Sharks, Skates, Rays and Billfishes Through Improved Fisheries Data Collection(상어, 홍어, 가오리, 새치류 관리 및 보존: 수산데이터 수집) - 주요 내용: 가나 어업 규제 및 관리조치 지원, 주요 상업용(수출) 어종의 어획 및 기타 사회 경제적 정보 수집체계 지원
세네갈	- 사업명: Coastal Senegal Marine Mammal and Sea Turtle Stranding Surveys to Assess Mortality and Fisheries Interactions (세네갈 연안 해양포유류 및 바다거북 폐사 및 어업 상호영향에 관한 실태평가) - 주요 내용: 세네갈 연안 해양포유류 및 바다거북 폐사율, 어업 상호영향, 데이터 베이스 개발 및 생물보호를 위한 지역 기반 교육프로그램 추진
서아프리카	- 사업명: Strengthening Capacity of National CITES Authorities, Customs, and Enforcement Authorities to Identify Listed and Protected Species in West Africa (서아프리카 멸종위기종 식별·관리를 위한 당국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멸종위기종 식별·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 개발, 교육프로그램 추진
가봉	- 사업명: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in Gabon Through Better Management of Fish Stocks and Artisanal Fishing Zones (가봉 수산자원 관리와 전통어장 개선을 위한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자원 감시 체계 및 데이터 관리 지원, 어업 관리개선을 위한 국가 역량 강화 및 전통 어업 공동체 협력체계 지원
동아프리카	- 사업명: Sawfish Conservation Planning in East Africa (동아프리카 톱 가오리 보존 계획) - 주요 내용: 1단계 모잠비크 국가 톱 가오리 보존 전략 개발 지원(케냐 중심 동아프리카 지역 보존 전략 연계), 향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연계 계획

자료: NOAA Fisheries(검색일: 2024.6.17.)

2.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의 국제수산업협력 사업 주요 시행 주체는 외교부(M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산하의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⁶⁵⁾,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업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Fisheries)로 볼 수 있다. Norad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운영하며, 통상산업수산업부는 국제 연 구, 어업협정 등 수산부문 국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노르웨이의 수산부문 대아프리카 국제개발협력사업은⁶⁶⁾ 1975년 아프리카 서부 연안 어족자원을 조사하는 FAO 난센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그 규모와 주제가 다양해졌다. 2016년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원조개발사업을 Norad의 어류 개발(FfD: Fish for Development)로 재편하였다. FfD는 파트너 국가의 어업과 양식업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고용 증대와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를 지향한다.⁶⁷⁾ 그리고 어업과 양식업의 ODA 사업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인데, 어업은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고, 양식업은 식량안보, 경제성장, 소득(일자리 창출) 및 수출입 증대라는 관점에서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과 민간부문 진출을 위한 기금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Norad에 지식은행(Knowledge Bank)을 설립 및 외교부 책임하에 운영하여, 노르웨이 공공기관의 전문분야별 기술협력 강화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⁶⁸⁾ 그리고 1997년 Norfund Law에 근거하여 노르웨이 개발도상국 투

65) Norad는 노르웨이의 기후 및 산림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s Initiative)에 있어 서 기후 환경부 산하로 분류된다(Norad 홈페이지(검색일: 2024.4.14.)).

66)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8), pp. 10-11

67) Norad 홈페이지(검색일: 2024.4.14.); Norad(2019), p. 6.

자기금(Norfund)을 설립하였다. 외교부의 국제개발부 장관이 이 펀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민간사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Norfund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지속가능한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에 리스크 자본과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⁶⁹⁾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직접 자본이나 대출 형태로 투자한다.⁷⁰⁾⁷¹⁾

노르웨이 정부가 운영하는 대아프리카 수산업협력 사업은 수산업 관련 제도 개발, 수산 교육 및 연구, 현지 산업 모델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부문별 세부사업은 노르웨이 개발 협력 정책의 네 가지 핵심 이슈인 인권, 여성의 권리 및 양성평등, 기후변화와 환경, 부패 방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동일 지향점을 가진 아프리카 식량안보 개선 전략 ‘Combining forces against hunger’를 2022년 11월에 발표하였다. 본 전략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70~8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개발도상국 소규모 생산자가 자국 식량의 80%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우선 지원 국가로 선정⁷²⁾하고, AU를 주요 전략 이행 파트너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지원 사업은 FfD하에 수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발전, 시민사회 협력 등 패키지형 사업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운영할 것을 밝혔다.⁷³⁾

68) Norad(2020), p. 1.

69) Norfund 홈페이지(검색일: 2024.4.25.); Norwegian Ministries(2019), p. 40.

70) Norfund 홈페이지(검색일: 2024.6.4.)

71) 이 기금은 2022년에는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양식 펀드인 Aqua-Spark와 함께 틸라피아 양식 기업인 Lake Harvest Group에 700만 달러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업은 짐바브웨, 잠비아, 우간다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유통망과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7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 말라위, 모잠비크, 남수단, 탄자니아를 우선 지원 국가로 선정하였다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23), p. 13).

73)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23), pp. 6-27.

1) 어업부문

노르웨이는 국제기구, 비영리단체와 연계한 패키지형 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추진한 국제수산물협력 사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수산부문 범죄 및 불법 어업 예방을 목적으로 연구 및 행정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197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난센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FAO, Norad, 노르웨이 해양연구소(IMR: Institute of Marine Research)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프리카 및 벵골만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58개국의 어업 연구 및 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⁷⁴⁾ 프로그램 초기에는 자원 탐사에 중점을 두었지만, 상세 매핑과 목록 작성, 수산 연구 및 관리 역량 강화로 발전했다. 4단계(2006~2017년)부터 어업의 생태계 접근법(EAF)으로 전환하여, 아프리카 전역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⁷⁵⁾, 최근에 발표한 프로그램(2024~2028년)은 10억 크로네 예산으로 어업관리와 기후변화의 통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⁷⁶⁾

그리고 노르웨이는 서아프리카 6개국의 어업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2014년에 착수하여, 현재 2단계(2018~2023년) 사업에 4,540만 크로네를 투입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Trygg Mat Tracking(이하 TMT)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기니만 지역의 상업용 선박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서아프리카 태스크 포스(WATF: West Africa Task Force) 구축 및 모니터링·통제·감시(MCS: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⁷⁷⁾⁷⁸⁾

74) FAO News(2024.3.21.)(검색일: 2024.4.17.)

75) Norad(2019), p. 19.

76) 이는 FAO의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비전을 따르는 것으로, 어업관리 개선, 수산 기관 역량 강화와 해양 자원 및 생태계 과학 지식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FiskerForum(2024.1.7.)(검색일: 2024.4.18.)).

77) Norwegian development aid statistics and results 홈페이지(검색일: 2024.4.15.)

78) TMT는 불법어업 퇴치와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국가 또는 국제 조직에 어업 정보, 분석, 역량 강화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TMT 홈페이지(검색일: 2024.4.15.)).

또한 아프리카의 수산부문 범죄 및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행정력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도 진행 중이다. 2018년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는 블루저스티스 사무국(Blue Justice Secretariat)과 어업 관련 초국가적 불법 활동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레임워크인 블루저스티스 이니셔티브(Blue Justice Initiative)를 채택하였다. 이에, 노르웨이 바르데(Vardø)에 국제 블루저스티스 추적센터가 설립되었으며, 2020년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는 어업관리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개발도상국의 어업, 세금, 노동 및 경찰 관련 기관 관계자 대상 지식 기반 학습 패키지를 제공하는 블루 레질리언스(Blue Resilience)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⁷⁹⁾

Norad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FishNET 프로젝트⁸⁰⁾의 일환으로 2017년에 컨테이너 화물 스테이션 교육 패키지를 출시하였다. 아프리카 연안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공무원, 민간 및 비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업 관련 범죄 교육을 진행하는 본 프로젝트는 2016년 전문 관리자 및 공무원 양성을 위한 FishFORCE 아카데미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학교(NMU: Nelson Mandela University)에 신설한 바 있다.⁸¹⁾

79) 블루저스티스 이니셔티브는 '세계 어업의 조직 범죄에 반대하는 코펜하겐 선언(2018년 10월)'에 기반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61개 국가(아프리카 19개국 포함)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과 협력하는 프로젝트이다. 초국가적 범죄에는 불법조업, 불법 부패, 세금 및 관세 사기, 자금 세탁, 횡령, 문서 사기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수산 공급 및 가치 사슬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를 포함한다(Norwegian Ministries(2019), p. 40; Blue Justice Initiative 홈페이지(검색일: 2024.4.18.); Blue Justice Initiative News(2021.7.9.)(검색일: 2024.4.18.)).

80) FishNET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해역에서 보호종과 멸종 위기종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어업과 환경 파괴 및 자원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참여대상은 항만 통제 담당자, 수산 관련 기관, 당사국 실무기관, 비정부기구 등이 해당한다. 교육내용으로는 부패, 성평등, 법적 프레임워크 적용, 정책 문제 등을 다루고, 데이터 수집·저장·분석·공유 방법을 학습한다. 2023년 10월에는 토고, 베냉, 가나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검색일: 2024.4.17.)).

81) Nelson Mandela University(검색일: 2024.4.16.)

2) 양식부문

노르웨이는 양식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경제성장, 소득 및 수출입을 목표로 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식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현지 맞춤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어병, 에너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안정화 지원과 교육 대상자의 수준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아프리카의 양식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노르웨이 정부가 아프리카 현지에서 다년간 양식 교육·연구 경험이 있는 WorldFish와 협력하여 양식어류 사료 개발, 수생물 건강 개선,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는 ODA 사업이다. 노르웨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회복력 있는 수생식품 시스템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료 개발 및 확장(Development and Scaling of Sustainable Feeds for Resilient Aquatic Food, 이하 FASA) 프로젝트’에 8,000만 크로네(2022~2027년)를 지원한다.⁸²⁾ 이는 WorldFish의 관리하에 저비용 고효율의 어류 사료를 개발하고, 나이지리아, 케냐, 잠비아의 소규모 양식장에서 테스트 등 활용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밖에도, WorldFish와 노르웨이 수의학연구소(NVI: Norwegian Veterinary Institute)는 가나와 케냐 소재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양식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수생생물 건강관리 개선 프로젝트’⁸³⁾를 지원한다. 이는 가나 대학교와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12개 석사연구 장학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WorldFish 아프리카 어류 혁신 허브(FAIH: Fish for Africa Innovation Hub)에서 온·오프라인 실습 교육 등을 제공한다.⁸⁴⁾ 마지막으로, 주이집트 노르웨이 대사관은 2023년에 ‘양식 재생에너지 센터’ 이니셔티브(2,100만

82) WorldFish, FASA(검색일: 2024.4.16.)

83) 해당 프로젝트는 WorldFish가 운영하는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onsortium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entres)의 어류 농업식품시스템(Fish Agri-Food Systems) 연구 프로그램과 노르웨이 NVI가 진행하는 FfD-가나 양식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84) WorldFish(2021), pp. 1-2.

크로네 규모)를 발표하고, 향후 4년 동안 WorldFish의 양식산업에 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⁸⁵⁾

통상산업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AquaVitae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노피마(Nofima)가 EU의 재정 지원을 받아 주도하며,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유럽, 브라질, 북미 국가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다. 해조류 및 성게와 같이 저영양 종의 생산을 늘리는 양식법을 개발하고, 생태통합양식(IMTA: Integrated Multi-Trophic Aquaculture Systems)을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정 강화를 목표로 한다.⁸⁶⁾

그리고 양식분야 직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사마키 포아(Samaki Poa) 양식어업인 디지털 교육’⁸⁷⁾ 프로젝트는 Norad의 자금 지원을 받아 동아프리카와 유럽의 5개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⁸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0만 유로가 투입되며,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의 1,200명 이상 양식장 근로자들에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및 현장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는 모로코의 어업 및 양식 지원 전략인 할리에우티스(Halieuutis)의 일환으로⁸⁹⁾ ‘모로코의 양식 기술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2019년 12월~2022년 12월)’에 16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1단계 사업에서 어패류용 시범 및 훈련장 2개의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재는 네덜란드 정부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양식 전문가 및 숙련 근로자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⁹⁰⁾

85) Fish Site(2023.7.11.)(검색일 2024.4.12.)

86) AquaVitae, IMTA(검색일: 2024.8.24.)

87) Larive International, Samaki Poa(검색일: 2024.4.14.)

88) 5개 업체는 Blue Planet AS., Lake Harvest Group Pvt Ltd., Larive International B.V., Lattice Aquaculture Ltd., Skretting/Tunga Nutrition이다.

89) Ray & Robsona(2019), pp. 1-28.

90) FAO(2023), pp. 1-2.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정부는 영리·비영리 기업을 지원하여, 아프리카에서 상업형 양식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Norad는 ‘마다가스카르 남서부에서 양식산업 프로젝트(2016~2019)’⁹¹⁾⁹²⁾로 안정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달성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노르웨이의 비영리단체인 노르게스 벨(NV: Norges Vel)과 영국의 환경단체인 블루 벤처스(BV: Blue Ventures) 간 파트너십으로 해조류 및 해삼 양식을 연구하고 상업화한 사례다. 특히, 해삼 생산단체인 장가관리위원회(ZMC: Zanga Management Committee) 주도의 비즈니스 운영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프로젝트 성공의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Norad가 50만 크로네를 지원한 아프리카 골든 틸라피아 팜(African Golden Tilapia Farm) 파일럿 프로젝트는⁹³⁾ 가나의 틸라피아 양식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현재는 부화 및 양성 단계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이르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⁹⁴⁾ 이 외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모잠비크 양식연구센터(CEPAQ: Centro de Pesquisa em Aquacultura)를 통해 틸라피아를 생산할 수 있도록 NV에 6,480만 크로네(2019~2024년)를 지원할 계획이다.⁹⁵⁾

91) Ray & Robsona(2019), pp. 1~28.

92) NorgesVel(검색일: 2024.4.16.)

93) Norad(2019), p. 8.

94) Golden Tilapia 홈페이지(검색일: 2024.4.12.)

95) CEPAQ는 노르웨이 외교부가 아이슬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설립 지원을 한 양식 플랫폼이다. 이 센터의 주요 업무는 어류 종자의 유전적 향상과 육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NorgesVel(검색일: 2024.4.24.)).

3. 일본

일본 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JICA는 양자 협력에 있어 유무상원조사업, 기술협력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기관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하드웨어 구축, 소프트웨어 제공 등의 조합을 통해 효과적 구상이 가능한 체계이다.⁹⁶⁾ 수산업과 관련하여 JICA는 정책의제인 ‘JICA 글로벌 어젠다(JICA 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를 통해 20여 개 핵심 사업구상을 공표하였는데, 이 중 다섯 번째 의제인 ‘농업개발/농촌개발’에서 ‘수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의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원국의 발전을 통해 식량안보 확보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산부문에 수산물의 경제적 가치(외화 획득원)와 영양적 가치(주요 단백질 공급원)를 인식하고, 기후변화, 남획에 대응한 관리체계 강조하고 있다. 또한, JICA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수산블루 이코노미 진흥(水産ブルーエコノミー振興)’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어촌조직에 의한 자발적 관리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⁹⁷⁾

한편, JICA의 수산분야 지침(課題別指針 水産)상에는 아프리카 권역의 특성과 개발 방향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세네갈에서 앙골라까지 대서양 연안국의 소규모 어업 발달과 이에 따른 식량공급, 고용, 소득확보 측면에서의 기능을 언급하고 있으며, 수산물이 축산물에 비해 가격 및 시장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높고 영양 공급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발협력 분야로는 자원관리, 어촌개발, 수산가공업(건어물 훈제), 내수면 양식(틸라피아) 등을 제시하였다.⁹⁸⁾

96) JICA, ODA and JICA(검색일: 2024.9.4.)

97) JICA, 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 5. 農業・村落開発(검색일: 2024.9.4.)

98) JICA, 課題別指針 水産(검색일: 2024.9.4.)

1) 연안국 자원관리

JICA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촌 단위에서 자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전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JICA의 ‘수산물블루이코노미 진흥(水産ブルーエコノミー振興)’ 이니셔티브에 속한다.⁹⁹⁾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베스만 해안수산자원 공동관리 프로젝트(ガベス湾沿岸水産資源共同管理プロジェクト)’가 있다. 이는 튀니지 기술협력 사업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추진되었다. 튀니지의 가베스만은 남부 3개 지역이 걸쳐진 수산자원이 풍부한 연안이었는데, 남획과 불법 조업으로 인한 생태 서식 환경의 파괴로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연안어업 생산량도 감소한 바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어촌 단위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기술과 도구를 전수하고, 어업인 단체와 행정기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관리기반 구축을 지원하였다.¹⁰⁰⁾

‘가치사슬 개발을 통한 수산자원 공동관리 촉진 방안 수립 프로젝트(バリューチェーン開発による水産資源共同管理促進計画策定プロジェクト)’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는 세네갈을 대상으로 한 기술협력 사업으로, 2014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세네갈에서 어업은 고용, 식량 안보, 경제 진흥, 빈곤 대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획량 감소 및 체장 감소 등의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어업 수산자원 공동관리를 촉진하는 수산물 가치사슬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일본 기술 전수를 통한 문어 어획후 손실량 감소 및 수출용 문어 검품 기술 습득, 사업 대상지의 어민 조직 운영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였다.¹⁰¹⁾

99) JICA, 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 5. 農業・村落開発(검색일: 2024.9.4.)

100) JICA, Project on Co-management of Coastal Fisheries in the Gulf of Gabes(검색일: 2024.9.4.)

101) JICA, Project to formulate a plan to promote joint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through value chain development(검색일: 2024.9.4.)

2) 어업 조사선 지원

일본의 주요 수산물 수입 대상국 중 하나는 모로코다. 일본의 ‘2023년 농림수산물 수출입 정보·개황’에 따르면, 대구는 모로코가 일본의 최대 수입국이며, 한천은 2대, 낙지·문어는 3대 수입국인 만큼 수산물 교역이 활발하다.¹⁰²⁾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일본과 모로코 간 수산협력은 1979년부터 제빙시설 및 어구창고 등 인프라 구축, 수양장 4곳 정비, 어업 기술 전수 및 훈련, 수산자원 연구 및 조사선 공여 등을 추진해왔다.

JICA의 ‘해양·어업 조사선 건조 사업(海洋·漁業調査船建造事業)’은 모로코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수산부문 유상원조사사업으로, 2017년 1월 차관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총 사업 규모는 약 53.71억 엔이다. 당초 본 사업은 자원조사선을 지원하는 무상원조사사업의 형태였으나, 해당 선박이 노후화됨으로써 신규 조사선을 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본 사업은 수산자원 관리 기반 강화와 해양·어업조사 능력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⁰³⁾ 2020년 12월 일본 오카야마현 타마노시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조사선이 출항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사연구를 위해 활용된다.¹⁰⁴⁾

한편, 북아프리카 권역으로는 튀니지를 대상으로 한 ‘어업자원관리 지도선 건조계획(漁業資源管理指導船建造計画)’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어업자원관리 지도선 2척을 건조 지원하여 튀니지의 불법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사업비는 12.09억 엔 규모이다.¹⁰⁵⁾

102)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輸出入情報・概況(검색일: 2024.9.4.)

103) JICA, OCEANOGRAPHIC AND FISHERY RESEARCH VESSEL CONSTRUCTION PROJECT(검색일: 2024.9.4.)

104) MITSUI E&S(2020.12.18.)(검색일: 2024.9.4.)

105) JICA,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Fishery Surveillance Vessels(검색일: 2024.9.4.)

3) 인력양성

JICA는 아프리카 수산부문 인력 양성을 위해 ‘불어권 아프리카 수산 인재 육성 프로젝트(仏語圏アフリカ水産人材育成)’를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추진한 바 있다. 이는 JICA의 기술협력사업으로 모로코 교육기관에서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 연수생을 초청·교육하며, JICA는 교육연수를 위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본 사업의 목표는 아프리카 권역의 수산 교육·훈련, 수산물 위생관리·검사기술 교육 및 보급을 통해, 모로코를 거점으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¹⁰⁶⁾

모로코 측 총괄기관은 모로코 국제협력단(AMCI: Agence Marocain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이며, 현지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교육기관으로는 아가디르해양수산고등교육원(ISPM-Agadir: Institut supérieur des pêches maritimes d'Agadir), 수산물부가가치 향상센터(CSVTPM: Centre Spécialisé de Valorisation et de Technologie des Produits de la Mer) 및 라라쉬해양수산기술학원(ITPM-Larache: Instituts de Technologie des Pêches Maritime de Larache)이 있다.¹⁰⁷⁾ 이 중 라라쉬해양수산기술학원은 1999년 JICA 협력 사업을 통해 설립된 해양수산 교육 및 자격 인증 연구소로¹⁰⁸⁾, JICA가 과거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적·물적 자원을 후속사업과 연계 추진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06) JICA, French-speaking Africa Fisherie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검색일: 2024.9.4.)

107) AMCI 홈페이지(검색일: 2024.9.4.)

108) ITPM LARACHE 홈페이지(검색일: 2024.9.4.)

4) 기타 수산협력 사업

일본 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은 JICA가 주관하는 ODA 외에도 농림수산성의 국제어업진흥협력 보조금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익재단법인 해외어업협력재단(公益財団法人海外漁業協力財団, Overseas Fishery Cooperation Foundation of Japan, 이하 OFCF)’의 사업이 있다. 1973년 설립된 OFCF는 어장 확보와 수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일본과 어업협력 관계에 있는 140개 이상의 국가·국제기구 대상 기술·경제 협력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¹⁰⁹⁾

OFCF의 기술협력은 지속적인 어장확보를 위해 협력국으로의 기술교육 연수, 옵서버 양성, 자원 조사 분석, 어장 조성, 기후대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이다. OFCF의 경제협력은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해외 합작 법인 용자, 국제수산자원 관리 투자 용자 등의 금융지원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OFCF는 연안국과의 어장협상 시 수산분야 협력 안전을 발굴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기에 국제수산협력에 있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¹¹⁰⁾

한편,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OFCF의 주요 국제수산기술개발 사업으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카메룬 내수면 양식 사료 개량 기술개발 및 전수에 관한 ‘해외수산 개발협력 연구조사 사업’과, 2011~2012년 세이셸 ‘자원관리 거점 정비사업’, 2003~2010년 세이셸 ‘인도양 참치류 자원 정보 정비 협력프로젝트’ 등이 추진되었다.¹¹¹⁾

109) 公益財団法人海外漁業協力財団 홈페이지(검색일: 2024.9.4.)

110) 위의 자료

111) 国際水産技術開発, 公益財団法人海外漁業協力財団(검색일: 2024.9.4.)

4. 중국

중국과 아프리카의 국제수산협력은 1985년 원양선단이 서아프리카로 출항한 기점으로 지난 40년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¹¹²⁾ 중국은 상무부 일대일로 구상,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청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연계하여 아프리카 수산협력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¹¹³⁾

1) 일대일로 연계 원양어업 진출

중국은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아시아 유럽 간 해상 교류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프리카를 해상 실크로드의 구심점으로 평가한다.¹¹⁴⁾ 특히 원양어업을 글로벌 진출과 일대일로 대외협력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아프리카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¹¹⁵⁾하는 노력과 함께, 일대일로라는 정책적 프로세스와 원양어업을 연계한 아프리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¹¹⁶⁾

중국 정부는 원양어업 글로벌 거점 확보 방안으로 해양기지 구축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기지는 원양어선 정박, 어획물 하역, 저장, 거래, 가공, 콜드체인 등 통합적 기능 확보를 목표로 한다.¹¹⁷⁾ 대표적인 사례로는 복건성 원양어업체인 흥동어업(宏东渔业)의 모리타니 해외원양어업기지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2013년부터 국가정책수출신용보험의 지원을 통해 구축

112) 중국 농업농촌부(2016.1.27.)(검색일: 2024.9.5.)

113) 일대일로 구상은 경제적 차관과 지원으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인프라 건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GDI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시행 주제와 성격이 상이하다(Baidu Baike, 全球发展倡议(검색일: 2024.9.5.)).

114) Baidu Baike, 一带一路(검색일: 2024.9.5.)

115) Shenzhen Qianzhan(2022.12.30.)(검색일: 2024.9.5.)

116) Shenzhen Qianzhan(2022.12.30.)(검색일: 2024.9.5.)

117) Liu & Yu(2017), pp. 8-23.

된 해당 기지는 부두, 어업, 가공, 저장, 제빙, 유류 저장, 어분, 담수화 등 산업 기능을 두루 갖춘 90,000제곱미터 규모의 종합시설로, 현지인 고용 인원은 2,000여 명이다. 모리타니 정부는 홍동어업에게 169척의 어업 면허를 부여하고 영해를 중국에 개방하였다¹¹⁸⁾. 모리타니 원양어업기지의 연간 생산액은 2019년 기준 약 7천만 달러 규모로, 80여 종의 수산물이 어획, 가공되고 있으며, EU,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등으로 연중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¹¹⁹⁾

이 밖에도 중국은 원양어업의 안정적 해외어장 진출을 위해 대외적으로 공해상 자원관리에 대한 정부지침을 공표해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자원보호 정책은 공해상 오징어 자원보존 조치로서, 2020년 6월 농업농촌부는 ‘중국 원양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해상 오징어 자원보존 강화 관련 농업 농촌부 통지’를 공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해상 오징어 자원보존·관리 실시, 자원조사·평가, 국제협력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¹²⁰⁾ 이러한 지침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 남서대서양, 북인도양, 동태평양 등 주요 공해 어장에서 오징어 조업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공해자율휴어제를 실시하고 있다.¹²¹⁾ 2023년 기준 약 70여 개의 원양기업과 700척의 원양오징어어선 및 트롤선이 공해자율휴어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다.

2) 아프리카 수산협력

중국-아프리카 어업연합(CAFU: China-Africa Fishery Union)은 중국 원양기업이 아프리카 어업자원 정보 수집과 이용·개발의 협력기반 구축을 목표로 2012년에 설립한 무역 협의체이다.¹²²⁾ 이 협의체를 통해 중국은

118) 중국 일대일로망(2021.7.23.)(검색일: 2024.9.5.)

119) 위의 자료

120) 중국 중앙인민정부포털(2020.6.1.)(검색일: 2024.9.5.)

121) 중국 중앙인민정부포털(2020.6.2.)(검색일: 2024.9.5.)

2021년 기준 모리타니, 기니 등 약 20여 개 아프리카 국가와 어업협력 관계를 맺고, 500척 이상 중국어선의 입어와 연간 약 30만 톤 규모의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¹²³⁾ 중국은 기업 차원에서 냉장창고, 부두 및 가공시설 등의 설비 투자 및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불법어업을 자행한 자국 어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취소,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경영체 관리도 강화하였다.

한편, 중국은 2021년에 발표한 새로운 개발협력 이니셔티브인 GDI를 통해 식량안보 및 빈곤 감소를 위한 남남 농업¹²⁴⁾ 협력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농업 회복력 향상 등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어업분야의 경우 양식업을 남남협력의 핵심 분야로 설정하여, 경제적 이윤 창출과 더불어 고용, 생물다양성 확보, 양성평등과 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¹²⁵⁾ 주요 사례로는 2022년 중국-FAO-우간다 남남협력 프로젝트 3단계에서 남남합작 농업기술혁신센터를 우간다에 설립하고, 쌀, 양식업, 축산업의 3대 분야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¹²⁶⁾

중국은 자국의 고품질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자 아프리카와 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중국 호남성에서 개최한 ‘중국-아프리카 국가 어업 및 수산물 중개 협력 회의’를 통해 양측의 어업분야 협력과 교류 촉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상세 내용으로는 중국의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 대상 과학기술연구, 산-학-연의 심층 연구, 고품질 수산 종의 개선 및 홍보, 양식 및 가공 기지 건설, 기업 건설 및 시장 건설을 포함한다. 중국의 진자식품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케냐 프로젝트는 지역

122) BaiduBaike, 中非渔业联盟(검색일: 2024.9.5.)

123) SOHU(2021.1.21.)(검색일: 2024.9.5.)

124) 중국에서 농업(农业)은 재식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Baidu Baike, 农业(검색일: 2024.9.5.)).

125) SOHU(2021.9.27.)(검색일: 2024.9.5.)

126) 중국 농촌진흥온라인(2022.11.18.)(검색일: 2024.9.5.)

어민의 어획물을 중앙 집중식으로 구매하여 건어물로 가공하여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¹²⁷⁾

3) 어장확보를 위한 자원조사

중국의 수산부문 종합계획인 14차 5개년 전국어업발전계획에서 어업발전의 첫 번째 목표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 제시되면서, 해외 신규 어업자원 및 어장의 개발은 더욱 중요해졌다.¹²⁸⁾ 이와 관련하여 농업농촌부는 세부 전략인 원양 오징어어업 개발 방향을 통해 북태평양 어장의 합리적인 사용, 남서대서양 어장의 규제, 남동태평양 어장의 최적화, 인도양 어장의 지속적 개발을 명시하였다. 이는 인도양이 신 개척어장으로서 개발영역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권역별로 분류하여, 서아프리카는 전통적인 협력지역, 동아프리카는 신흥협력지역으로 협력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중국은 아프리카 주변 어장 개발을 위해 자원조사선 파견을 원조하고,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등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인도양 공해지역 자원조사’, ‘아프리카 해양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등의 자원조사 연구도 다각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2023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 인도양 공해지역 자원조사는 어업자원의 분포, 수량, 구조 및 역학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연구진은 참치, 황새치 등 112종의 수산생물을 포획하고 샘플을 수집하여, 인도양의 어업자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였다.¹²⁹⁾ 그리고 2012년 나이지리아와 대륙붕 공동조사, 2013년과 2015년 중국-아프리카 해양과학기술포럼, 2016년에는 모잠비크, 세

127) 인민망(2022.5.27.)(검색일: 2024.9.5.)

128) 중국 농업농촌부(2022.1.6.)(검색일: 2024.9.5.)

129) Chinanews(2024.3.26.)(검색일: 2024.9.5.)

이셀 해양지구과학 공동조사를 수행하면서 해양과학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하였다.¹³⁰⁾

4) 인력양성

중국은 해양 및 양식 부문 아프리카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일대일로 장학금인 ‘해양장학금’은 전략적으로 아프리카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37개국 300여 명의 개발도상국 학생의 석·박사 학위 과정을 후원하고,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세미나도 운영하여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다.¹³¹⁾

중국은 양식분야의 교류, 협력 또한 중요한 어젠다로 삼고 있다.¹³²⁾ 중국 정부는 중국수산과학연구소 담수어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양식업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³³⁾ 해당 센터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26개의 국제 단기 연수 프로젝트와 대외원조 학술 교육 프로젝트 4개를 개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의 국가 상황과 문화, 종자 육종, 녹색 육종, 사료 개발, 질병 예방 및 통제, 환경 관리, 가공 및 품질 안전, 수산 경제, 자원 관리, 스마트 어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원활한 양식기술 보급을 위한 ‘양식 산업단지 표준화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영문교재와 벼-양식 통합 재배, 티라피아 고수의 사육 기술, 잉어 사육 기술 등 양식 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130) thepapaer(2018.9.1.)(검색일: 2024.9.5.)

131) cctv(2023.10.16.)(검색일: 2024.9.5.)

132) 중국 농업농촌부(2022.1.6.)(검색일: 2024.9.5.)

133) Freshwater Fisheries Research Center(2023.1.1.)(검색일: 2024.9.5.)

제3절 시사점

3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국제수산협력 정책 기조, 그리고 주요국의 국제수산협력 대표사례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글로벌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에 있어 ODA 사업이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ODA 사업 정책 기조로 사업당 예산규모를 확대하되, 실질적 효과와 지속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운영 성과 등 프로세스 관리에 체계적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각 국가의 국제수산협력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는 아프리카 권역에 특화된 식량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패키지 사업 추진과 단계별 평가, 점진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사업규모와 효과를 확대하였다. 자원관리(불법어업), 수산업 관련 범죄 개선 등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양식기술, 어업관리 시스템의 현지화를 위해 패키지형 사업을 운영하여 지속성을 확보하고, 행정력 강화, 전문컨설팅, 교육 등의 분야별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수산부문 국제수산협력 정책은 USAID와 NOAA Fisheries의 이원화된 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USAID는 아프리카 수산업을 연안 소규모 전통어업, 내수면어업, 규모화된 생산 기반으로 유형화하고, 지역민의 경제적 이윤, 생계유지, 여성의 사회적 활동 기반으로서 기능을 강조한다. NOAA Fisheries 국제협력은 글로벌 수산자원 모니터링, 어족자원 보호, 혼획 문제 개선, 수산 거버넌스 확립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부문의 세계 규범화 촉진을 위해 IUU 어업국 공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정책적 프로세스와 원양어업을 연계한 아프리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모리타니 해외원양어업기지 구축은 원양어업을 구심점으로 한 대표적인 확장정책으로서, 국가 금융을 통해 해외투자 리스크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대규모의 기지 건설로 점에서 양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획물 상품화, 부가가치 향상,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유발효과를 담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수산자원조사 및 연구개발 협력, 인력양성, 민간협업체 구성과 같은 적극적 수산협력 행보를 보여왔다.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담기관인 JICA가 기획·양자 협력에 있어 유무상 원조사업, 기술협력사업을 총괄 운영함으로써 계획 수립단계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합한 효과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연안국 협력, 어업조사선 지원, 인력양성 등 다양한 ODA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산업적 수혜를 목적으로 ODA 추진이 제한적인 어장 확보 및 안정적 수산물 수급 관련 활동은 공인재단법인 해외어업협력재단을 통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국제수산협력 정책은 국가 및 산업 등 목적별로 다각적 접근이 가능한 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ODA 패러다임 변화와 수산협력에 관한 국가별 다각적 접근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국내 수산부문 ODA 사업은 기후위기, 양성평등, 생물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과제 해결을 지향하고, 이행과정에서 전문성 및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 민간, 국제기구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의 대아프리카 ODA는 양자협력, 양자성 다자협력 위주로 운영되므로, 수산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국제기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정보 확보, 국제기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04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체계 개선 방안

제1절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 ——

1.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SWOT 분석

우리나라의 국제수산업협력에 있어 강점(Strength)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프리카 해역에 단독 또는 합작 선사 형태로 원양어업에 진출하고 있으며¹³⁴⁾, 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권역에서 수산업 인프라 지원 사업추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KOICA의 ODA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공무원 대상 연수사업¹³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분야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국제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단계적 패키지형, 대형 사업을 국내 사업 추진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

134) 단독 선사는 대서양 중동부에 연승 2척, 대서양 동남부에 연승 4척, 인도양 서부 선망 2척, 연승 1척 등 총 9척이 조업하고, 합작 선사는 대서양 중동부에 선망 5척, 대서양 중서부에 선망 2척 등 총 7척이 조업하고 있다(한국원양산업협회 이상목 센터장 서면자문(2024.7.1.)).

135) 부경대학교 해외어업협력센터 연수사업과 국제수산업과학협동을 통해 배출된 아프리카 연수생의 소속 국가는 총 28개국이다(부경대학교 강경미 교수, 해외어업협력센터 유지혜 팀장 자문(2024.8.27., 대한민국 부산)).

프리카 대상 국제수산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2024년 부경대학교가 KOICA의 지원으로 시작한 ‘탄자니아 잔지바르 여성 어업종사자 해양수산업 가치사슬 구축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부경대학교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을 졸업한 탄자니아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착수한 사업으로, 해조류 양식업의 생산·가공·유통에 걸친 가치사슬 전반을 다루는 프로젝트다.¹³⁶⁾

그리고 어업 부문에 있어서 소규모어업과 수작업 위주의 현지 어업상황을 고려하여, 기술 수용력이 높고 어획강도를 완화하는 연안어업 기술 전수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수산자원회복사업, 총허용어획량 제도 운영 등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회적(거버넌스 구축, MCS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운영 등), 기술적(종묘 배양 등)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특히, IUU 불법어업 예비 어업국 지정 해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해역 불법어업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실례로 우리의 IUU 어업 현장 대응 경험을 살려 운영 중인 IUU 어업 대응 능력 강화 프로젝트인 캡피쉬(CAPFISH: Capacity Building Project to Fight against IUU Fishing)가 있다.¹³⁷⁾

우리나라는 내수면과 해수면에 서식하는 다양한 품종의 양식 기술 보유라는 강점이 있으며, 현지 양식업 발전 수준과 개발 수요 맞춤형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노르웨이의 마다가스카르 양식 사례와 같이, 기존의 아프리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거버넌스 구축 등을 연계하는 방식은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추진에 있어 약점(Weakness)도 존재한다. 국가 상위 국제개발협력 계획에서 수산부문이 미약하게 다뤄지고, 해당

136)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원양산업뉴스(2024.1.30.)(검색일: 2024.8.27.)

137) 현대해양(2023.11.9.)(검색일: 2024.8.25.)

계획의 중점 협력국가에 수산협력 수요가 많은 국가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용도를 지정할 수 없는 다자간 협력 특성상 「다자협력 추진전략(22-’26)」에서 해양 혹은 수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전략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중점과제 중 하나인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고도화에서 수산부문을 전문으로 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추진상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¹³⁸⁾

그리고 수산 ODA 추진에 있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의 부재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노르웨이, 중국은 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노르웨이는 아프리카 지역에 전문화된 전략을 별도로 수립함으로써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 ODA의 75.1%(5.68백만 달러)를 수행하고 수요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산 ODA 전략의 부재와 더불어 시행관리 주체가 모호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협력 사업의 유무상 원조사업의 조합, 삼각협력 등 다양한 협력사업 구성 및 확장과 같이 전문적이고 세부적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에 해양수산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아 신규 협력 대상국 발굴과 협력사업의 추진력이 부족한 문제도 존재한다.¹³⁹⁾

다음으로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기회요소(Opportunity)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수산물 생산량과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양적성장을 이루어냈다. 1995년에는 아프리카 어업 및 양식업 종사자¹⁴⁰⁾ 수가 320만 9천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14만 1천 명으로 약 1.9배 증가하였다. 특히 양식업 종사자는 4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종사자

138) 관계부처 합동(2022a), p. 11.

139) 해외수산협력센터 명예해양수산관이 아프리카 3개국(가나, 세네갈, 모리셔스)에 임명되어 있다(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명예해양수산관(검색일: 2024.6.29.)).

140) FAO의 세계 지역별 어업 및 양식업 종사자 추이는 상이한 국가별 통계 활용 가능 여부 및 업데이트 차이에 따라 그 수치가 상이하다(FAO(2014), p. 46). 이번 장에서 활용한 통계는 FAO(2024) 기준이다.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에 4.7%에서 2022년 10.6%로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1995년 606만 7천 톤에서 2022년 1314만 5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성장과 함께 불법어업, 거버넌스 부족 등의 수산업과 연계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아프리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관행 구축과 성평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다양하게 요청하고 있으며¹⁴¹⁾, 이는 국제수산협력 및 ODA 사업 발굴에 있어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원양업체 2개 사가 존재하고¹⁴²⁾, 국내 청년 어업인 부족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해 국제수산협력 참여주체가 원양어업에서 연안어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체의 연계를 통한 사업수행 기반 강화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 니즈를 고려한 사업기획 및 추진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추진에 있어 위협요소(Threat)는 글로벌 수산 ODA의 경쟁이라 할 수 있다. 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국, 노르웨이, 일본은 수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발전을 위한 대형·패키지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여 공여국의 국제협력 목적과 수혜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 SDGs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많은 공여국가들이 국제 어업질서 기여, 양식산업 신(新)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이용, 어업 협상력 강화 및 식량안보 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와 자국의 이익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141) 2024년 KORAFF를 통해 알제리 수산부는 '알제리 수산양식 2030 전략'을 위한 한국-알제리 전문가 포럼 정례화와 공동연구를 요청하였다(아흐메드 바다니 알제리 수산부 장관 회의(2024.4.21., 알제리 알제);내일신문(2024.4.24.)(검색일: 2024.8.27.))

142) 2024년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시행한 원양업계의 아프리카 진출 수요 조사에 따른 결과다.(한국원양산업협회 이상목 센터장 서면자문(2024.7.1.))

〈표 4-1〉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특징 및 사업 요약

국가	특징 및 주요 사업
미국	어업관리, 자원회복 및 보호, 거버넌스 강화 등 어업 위주의 사업 운영 •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 자원조사 및 보존, 데이터 체계 구축, 거버넌스 및 관리 강화, 어업공동체 교육 협력 • 국제개발협력: 식량안보 및 빈곤 개선, 기후변화 적응력,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개선 - 어업분야 생산성 회복(수산자원 회복), 자원관리, 불법어업 근절, 수산업 성장기반 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노르웨이	어업·양식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패키지 사업 운영 • 어업: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난센프로그램(FAO), 어업 거버넌스 강화(비영리단체), 수산부문 범죄 및 불법어업 예방 패키지사업(국제 이니셔티브 채택), 어업범죄 교육패키지(UNODC) • 양식업: 식량안보, 경제성장, 소득 및 수출입 증대, 지속가능한 생산 - 양식 기반 연구(WorldFish), 양식장 근로자 교육, 훈련시설 마련(네덜란드 공동자금), 양식 성공 모델(영리·비영리 기업), 국제 양식연구(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일본	어업 중심의 협력 사업 운영 및 소수 국가에 집중된 ODA 사업이 특징 • 국제협력: 해외어장확보, 식량공급 - 기술협력사업(인력양성, 초청연수, 자원조사 분석, 어장 조성, 탄소중립 기술 등), 경제협력사업(해외어장 확보, 국제 수산자원관리, 합작사업 시 처리용자 지원) • 국제개발협력: 수산 블루 이코노미(소득 향상 및 경제 활성화, 빈곤 저감, 식량안보) - 수산자원관리 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수산물 가치사슬 개발(마스터 플랜 수립, 가공 기술 교류 등), 소수 국가 지정 ODA 사업(인프라, 훈련, 건조사업 등, 삼각협력 구축)
중국	자국 수산물 공급을 위한 어업부문 대규모 협력이 다수, 남남협력 양식 개발협력 추진 • 어업: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신규 어업자원 및 어장 개발 - 공해상 자원관리, 중국-아프리카 어업 동맹 체결(자원 정보 수집·이용·개발, 고정 자산 투자, 불법어업 강력 조치), 해외원양어업기지, 자원조사 및 공동연구 수행 • 양식업: 사회 및 경제 개발, 양성평등, 고용, 생물다양성 등 - 남남합작 농업기술혁신센터 설치 및 양식 관련 프로젝트 추진, 양식분야 교육·훈련 및 기술 매뉴얼 배포
한국	소규모 사업 중심의 아프리카 협력. 최근 어장조사, 시설 개선,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후변화 - 국제협력: 국제협상대응, 국제수산협상전문관 관리, 해외어장조사 - 국제개발협력: 수산물 냉동창고 건설 및 냉동탑차 보급, 역량 강화(해기사 면허 취득, 수산해양경제부 운영), 가공·유통 시설 개선 및 교육(여성어업인), 어촌 개발

주: 노르웨이의 괄호() 안은 파트너 국가·기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다년간 선진공여국이 수산협력 사업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국 협력 경쟁에 있어 우리나라 수산업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홍보, 표출할 수 있는 정책브랜딩과 차별화된 접근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그동안 소규모 사업이 중심이 되었던 대아프리카 사업을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하는 형태로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현재 대아프리카 협력사업이 미비한 양식분야와 연구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단계의 사업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업이 자연의존적인 산업인 만큼, 기후변화 취약성¹⁴³⁾이 높은 아프리카에서는 수산협력사업의 성공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전략 수립과 타당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SWOT 분석

국제수산협력의 내부역량	
강점	약점
• 다양한 수산인프라발전 사업 추진 경험 및 아프리카 네트워크 보유 • 소규모 어업 중심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연안어업 기술 보유 • 해수면·내수면 양식 기술 보유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적·기술적 경험과 능력 보유	• 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사업을 위한 전략 부재(ODA 사업 발굴·집행·평가 체계 부족) • 국제수산협력 관련 법, 계획의 과별 운영 • 아프리카 내 해양수산물 부재 • ODA 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발굴로 사업 중복성 문제 발생
• 연안국 다수 존재 • 아프리카 수산업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생산량, 어업인 수) • 현지 수산업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요청 발생 • 국내 국제협력사업 참여 주체의 다각화 • 최근 원양업계 아프리카 진출 수요 발생	• 국제기구, 선진국의 국제어업 기준 강화 • 선진 공여국의 현지 사업 활발 및 기존 사업과 차별화 필수 •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현장(현지 수산업 환경 정보 부족)
기회	위협
국제수산협력의 외부환경	

자료: 저자 작성

143)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홈페이지(검색일: 2024.8.13.)

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기본방향

앞서 다양한 국내외 정책 및 협력 트렌드를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정책의 기대효과를 도출해보면, (i) 수산업을 통한 아프리카 사회·경제적 현안 해결 기여, (ii)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와 시장진출 기반으로서 아프리카 거점 확보, (iii) 국제사회에서의 수산규범 선도국으로서의 지위 확립, (iv) 국가 대외협력 수단으로 수산업의 공고화라는 다각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아우르는 한-아프리카 정책목표로는 “상호 협력을 통한 한-아프리카 경제발전과 상호 이익 증진”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수산협력을 통해 아프리카가 직면한 빈곤 해소 등 당면과제 해소에 기여한다. 아프리카는 남아공을 비롯한 5개 국가가 아프리카 전체 경제를 대변할 만큼 경제력 측면에서 국가 간 경제력 불균형이 큰 가운데, 인구로는 하위 35개 국가에서 아프리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식량적, 경제적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¹⁴⁴⁾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수산협력은 기술 및 인프라 지원, 수산교육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아프리카 연안은 대서양, 인도양을 기반으로 어업·양식업 접근이 용이하고, 동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 등 내수면 어업의 잠재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산업적 여건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사회에 수산물(영양, 단백질)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 가공 활동 등의 경제적 이윤 창출 기반을 지원하는 형태로 아프리카가 직면한 식량, 경제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수산협력을 수산인력 감소와 같은 국내 수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방안과 연계 추진한다. 국내 수산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144) 박영호 외(2008), pp. 32-38.

인해 어선원 등 수산인력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⁴⁵⁾ 한편, 유엔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25%가 아프리카 인구로 구성될 것이며, 특히 15~24세의 청년층 비율이 최소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¹⁴⁶⁾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상호수혜를 얻는 형태로 협력방안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검토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한국이 보유한 수산부문 기술·연구·교육 인프라를 지원, 전수하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수산인력의 향상된 전문성과 역량을 상호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이 대아프리카 수산협력체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의 국제수산규범 준수 및 이행을 지원한다. 국제사회는 수산자원 고갈 및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어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FAO는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IUU 어업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⁴⁷⁾. 또한 IUU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 등을 국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⁴⁸⁾. 이처럼 수산분야의 국제규범이 자발적 조치에서 의무적 조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규범은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 참여를 위한 필수조치로 강화되었다. 따라서, 비교적 거버넌스 및 규범준수 체계가 미흡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법제도 기반을 지원하는 방안은 중요한 협력 어젠다라 할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해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수산규범화를 선도·확산시키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민간부문 아프리카 수산 진출 활로로서 국제수산협력 사업을 모색한

145) 농수축산신문(2024.8.30.)<검색일: 2024.9.9.)

146) UN ECA(2024.7.12.)<검색일: 2024.9.9.)

147) FAO(2001), p. 4.

148) FAO(2001), p. 5.

다. 아프리카는 인도양, 대서양을 연안으로 하여 수산자원의 잠재력이 풍부한 권역임에도, 인프라 부족과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반면, 국내 수산업은 불안정한 국제여건 속에서 해외어장에 대한 안정적 참여와, 정제된 시장에 따른 해외진출 기반 확보 등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다수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수산업협력 정책은 자원조사, 기술 이전,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수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에서의 아프리카 진출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산업협력 사업의 기획, 발굴, 추진 시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성과의 정합성을 도모한다. 국제사회는 개발협력의 목표로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17개의 목표로 구성된 SDGs의 목표 시한인 2030년이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Post-2030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서 전 세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준이라 할 수 있다.¹⁴⁹⁾ 국제수산업협력은 이러한 합의된 목표 실행에 있어 수산업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나아가 국가 차원의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수산업을 통해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주요 기능과 역할, 기대효과 등을 연계해 강구하여야 한다.

3. 추진전략

1) 아프리카 수산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분석

수산업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의 수산업

149) UN SDGs협회 홈페이지(검색일: 2024.9.9.)

발전 단계를 반영한 맞춤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프리카는 경제규모, 사회 인프라, 법체계 등 국가별 발전단계가 상이한 권역으로, 어업, 양식어업, 가공역량 등 수산업에 있어서도 발전단계가 국가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스마트 양식 기술이 발전하였다고 해서 사전 검토 없이 아프리카 국가에 해당 사업을 전수할 경우 효과적인 수용,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가령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적 설비, 시설은 지원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부품,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산업 발전에 관한 국가 계획 등의 문헌검토, 현지실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을 수산업 발전단계별로 분류하고, 국가의 실정을 반영한 단계별 지원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지원 사업을 구상할 경우에는 인프라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전기, 도로, 하수도 등 주변 인프라의 접근성 및 가용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세계 속 국내 수산업 강점과 경험을 연계한 협력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 경험에 비추어 아프리카 수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지원협력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국내 수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어업분야에서도 세계 유례가 없는 압축적 성장이 나타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부터 국내 어업 개발에서 해외 어장 개척, 수산 양식,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축적한 수산발전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또한 IUU 예비 어업국 지정과 해제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해결한 도전 과제들은 한국이 국제수산협력에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경험이다. 이

는 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선진국이 아프리카 국가에 전수할 수 없는 경험이자 한국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한국이 국제수산에 가지는 또 다른 비교우위는 수산교육 분야이다. 한국 수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한 것은 체계적인 수산교육 시스템이다. 국내에는 11개의 수산계 고등학교와 수산계 대학이 있으며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유관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산교육 시스템과 전문수산인력을 연계한 아프리카 수산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와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수산업과 산업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수산업 협력 사업의 패키지화

국제수산업 협력 사업이 민간부문의 아프리카 수산 진출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패키지 사업이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구성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⁵⁰⁾ 이러한 패키지 사업 추진은 협력 사업의 중복 작업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프로젝트 간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성과 달성에 이점이 있다. 더욱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업의 목표, 전략, 내용에 따라 패키지 구성은 다양할 수 있다. 대아프리카 수산협력에서는 수산업을 통해 아프리카가 직면한 핵심 문제인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수산업 협력 패키지형 사업은 수산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지원 사업’-‘인프라 관리를 위한 인력교육 및 양성사업’-‘사업의 사후 관리’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보관할

150) 관계부처 합동(2022b), pp. 1-20.

수 있는 전기, 상하수 시설 및 처리 시설 기반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사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프로젝트상에 포함하거나 수원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민간부문 개발협력 참여 유도

개발협력상 민간부문의 협력 및 참여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효과성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¹⁵¹⁾ 앞으로의 국제수산 협력에 있어서도 민간참여는 사업의 효과적 운영뿐만 아니라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¹⁵²⁾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여국의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 사업(시행) 파트너 발굴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로 직접지원 혹은 무상자금 지원이 해당한다. 둘째, 기업의 개발도상국 투자에 대한 매칭펀드 형태의 자금지원이다. 셋째,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직접 지원 또는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무상자금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정보공유, 정책연계를 위한 민관협력 이니셔티브, 기업이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형태가 있다.

개발도상국 지원 시 민간협력은 매칭펀드식 자금지원이 일반적으로, 자금지원은 보통 기술자문과 함께 제공된다. 수산분야에서는 이러한 민간지원 협력형태에 있어 기업의 역량이나 재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초기

151) 정진규(2011), pp. 95-104.

152) 개발도상국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 정부가 기업의 대개발도상국 원조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자금, 기술, 전문성 등이 개발도상국 진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민관 공동사업, 공동기금 등)하는 것을 의미한다(외교부(2008), pp. 1-10)).

에는 자금지원 대비 기술자문을 높게 책정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민관협의 절차 강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 지원형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상쇄·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사업(안)

1. 국제수산업협력의 핵심 사업

우리나라의 국제수산업협력은 해외어장 확보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시작되어 정부의 공적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의 협력 사업 추진은 수원국의 협력 니즈를 발굴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협력사업을 표준화하고 고도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수산업협력을 통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 사업을 유형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 유형화에 있어 고려사항은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 경험의 포괄 가능성, 아프리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생계 및 식량안보 확보, 아프리카 수원국 수산업의 국제규범 수용성 증진이 될 수 있다. 또한 단발성·일회성 사업 추진을 지양하기 위해 사업의 구성요소로서 국가 발전계획, 전략수립 등의 정책 컨설팅, 인프라 지원 사업, 해당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과 수원국의 유지보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상의 고려사항을 반영한 국제수산업협력 사업을 유형화하면 아프리카 지

속가능 수산업을 위한 협력 사업, IUU 어업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 사업, 어업의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수산협력 사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K-수산업(K-Fisheries) 확대 지원 사업

(1) 어업 부문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연근해 41개 어업이 있고, 이에 따른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이 존재한다. 원양어업도 발전하여 원거리 어업을 위한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역동성 있는 국내 어업과는 달리 아프리카 국가의 어업은 맨손어업, 카누 어업 등으로 매우 단순하며 발전 수준도 낮아 한국과의 수산분야 협력 수요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도 매우 크다.

K-수산업 어업부문 지원 사업의 첫 번째는 **한국 어선을 활용한 아프리카 어업 개발 지원 사업**이다. 한국 수산업은 수산자원 관리 강화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어선 감척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감척 어선을 아프리카 국가로 이전하여 어구 어법에 관한 교육 훈련 사업에 활용하거나 아프리카 연근해의 수산자원 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단, 어선이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실제 상업적 어업에 활용될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어선의 내구성을 평가한 선박 선정과 해적 활동 지역 등 위험 요소를 고려한 안전한 이동 경로 결정 역시 어업 개발 지원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¹⁵³⁾

두 번째는 **포획·채집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제빙시설 및 냉동창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제빙시설 및 냉동창고

153) 국내 어선이 아프리카 해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선 내구성 문제와 대양 횡단의 어려움이 실제 사업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어선 건조 비용과 사업 효율성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정지운 주무관 자문회의 바탕으로 작성 (2024.9.12., 영상회의))

없이 양륙 후 모래사장 등 노상에서 수산물을 경매·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수산물의 신선도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어획 후 손실(post-harvest)도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어항 지정 및 어항의 냉동창고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양식 부문

어류양식은 생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주기가 약 2년으로 길고, 각 성장 단계에 따라 관리방식도 달라¹⁵⁴⁾ 현지 양식기술 이전이 까다롭다. 또한 현지 환경조건에서 적합한 품종을 선정해야 하며, 안정적인 종자생산과 공급을 보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현지에서 전주기 양식에 성공하더라도, 생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¹⁵⁵⁾ 따라서, 양식 부문 협력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개선과 생산단체 조직 등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한다.

첫 번째 제안 사업은 한국의 해조류 기술을 활용한 아프리카 여성어업인을 위한 해조류 양식가치사슬 구축 사업이다. 해조류 양식분야는 어업보다 여성어업인의 진출이 용이해¹⁵⁶⁾, 여성의 권리 증진과 경제활동 기회 확대, 성평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 양식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해 양식기술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다.¹⁵⁷⁾ 국내 해조류 양식방법은 진홍식, 연승식, 투석식 등으로 다양해, 아프리카에서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생산량 증대와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을 시도할 수 있다.

154) 주간경향(2021.10.25.)(검색일: 2024.9.27.)

155) 부경대학교 강경미 조교수 자문회의 바탕으로 작성(2024.8.27., 대한민국 부산)

156) 예를 들어, 탄자니아 잔지바르 주민은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약받지만, 양식분야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15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24), pp.7-28.

탄자니아, 모잠비크,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상업적 가치가 높은 해조류를 양식해 공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르웨이의 마다가스카르 해삼·해조류 양식 ODA 사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해조류 양식가치사슬 구축사업으로 기존 양식시설의 개선, 컨설팅 업체 주도의 생산자 단체 결성, 양식기술 공유, 유통 문제 공동 해결 등 어업인이 새로운 양식 모델에 적응하고 이를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하도록 한다. 현재 부경대학교는 KOICA 사업으로 '탄자니아 잔지바르 여성어업종사자 해양수산업 가치사슬 구축 PMC 사업'을 진행 중으로¹⁵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노하우를 적용해 아프리카 권역별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협력사업으로 어류양식 확대를 위한 양식연구 패키지 사업을 제안한다. 현재 아프리카의 어류 양식은 주로 틸라피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3장에서 살펴본 해외사례처럼 선진 공여국들도 틸라피아 양식 고도화를 목표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기, 미꾸라지, 향어, 자라 등 다양한 품종에 대한 양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¹⁵⁹⁾, 국립수산물연구원 중앙내수면연구소와 지자체의 민물고기 연구센터 등 내수면 양식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국에서 선호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친환경 사료, 양식장 에너지 공급, 건강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패키지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 아프리카에 양식 연구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국가나 기관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USAID¹⁶⁰⁾, Norad 등 각국의 개발협력청들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또는 협력사업 형태로 양식협력을 추진하

158) PMC란 전문가 그룹이 발주처인 한국국제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부산일보(2024.1.14.)(검색일: 2024.9.27.)

159) 한국수산업(2024.5.7.)(검색일: 2024.8.13.)

160) USAID는 나이지리아 양식산업 부흥을 위해 유전적으로 개량된 양식 틸라피아(GIFT: Genetically Improved Farmed Tilapia) 보급에 협력하고 있다. USAID는 빌 앤 멜린다 게이트스 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과 함께 GIFT 종자 및 양성을 위한 WorldFish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WorldFish 홈페이지(2022.3.26.)(검색일: 2024.10.2.)

며, 기술 교육의 목적에 따라 대학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이미 진출한 국가나 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의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에게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효율성 확보라는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3) 수산가공 부문

우리나라 원양기업이 진출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수산물 가공단지 구축 사업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가공공장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 기지와 유사하게 정박, 어획물 하역, 저장, 거래, 가공, 콜드체인 등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종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원양 기업의 어획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럽, 중동 등 아프리카 인근 국가 수출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원양기업의 확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지인 고용으로 아프리카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상호호혜적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2024년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실시한 아프리카 진출 수요조사에서도 주로 수산가공 부문에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2) K-IUU 어업 예방 및 근절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

FAO, WTO 등 국제사회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 수산자원고갈을 가속화시키고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⁶¹⁾. 최근에는 국제사회를 비롯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수산자원

161) FAO(200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3.4.13.)(검색일: 2024.10.23.)

고갈뿐만 아니라 어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생물의 부수어획, 어선원의 강제 노동이 이뤄진 어업도 IUU 어업으로 간주하며, IUU 어업으로 특정된 어선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세계 무역 진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있다¹⁶²⁾. 수산업이 수출 산업이자 외화 획득원인 국가들은 IUU 어업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이행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IUU 어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획량의 보고, 어업 면허 및 허가 등 어업 관리에 대한 정부의 법률과 제도 등이 정립되어야 하며, 준법 조업 및 어업 보고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지역수산기구를 중심으로 IUU 어업 예방을 위해 전자보고 시스템 및 선상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전자모니터링(EM: Electronic Monitoring)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¹⁶³⁾.

우리나라는 2013년 2019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 및 해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실시간 감시 등 조업감시센터를 설립, 운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국내 일부 원양어선에 대해 전자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본 사업으로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 추진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협력사업을 IUU 어업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제 정비, 전자보고 및 전자모니터링 구축 등 인프라 사업, IUU 어업 모니터링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된 K-IUU 어업 예방 및 근절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3) K-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수산협력 사업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162) NOAA Fisheries(2023), pp.10-14.

163) WCPFC(2024),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CMMs) and Resolutions of the Western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WCPFC), pp. 58-92; IATTC(2024) 바탕으로 작성함

및 하위 수입규제규칙에 따라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어업 생산 과정에서 미국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¹⁶⁴⁾. 미국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란 해양포유류 자원조사, 어업 과정에 발생하는 해양포유류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조사, 해양포유류 혼획이 자주 발생하는 어업이 준수해야 하는 혼획저감조치 등이 포함되며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설정, 금어기·금어구 지정, 해양포유류-어업 간 상호작용을 저감하기 위한 어구 개발 및 개량 등을 위한 연구 개발(R&D) 등도 요구된다¹⁶⁵⁾.

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을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어업을 특정하고 해당 어업에 투입된 어선 척수, 목표 어종, 해당 어업과 상호작용하는 해양포유류를 파악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이를 수입 규제규칙에서는 해외어업목록(LOFF: List of Foreign Fisheries) 제출 과정으로 불린다. 해외어업목록 제출 이후에는 아프리카 각국은 동등성 평가를 신청하고 미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미 수출 시 동등성 평가가 승인된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아프리카 관계 당국이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MMPA 및 수입규제규칙에 따라 동등성 평가 결과가 2025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동등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대미 수출은 금지된다¹⁶⁶⁾.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일련의 절차를 2017년부터 진행해왔으며, 2025년 동등성 평가 결과 공개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및 해양포유류 자원조사

164)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1972);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2016) 바탕으로 작성함.

165) 해양수산부-미국 NOAA간 개최된 한미국제어업관리정례협의회에서 NOAA MMPA팀 관계자 인터뷰 내용 인용함(해양수산부 내부 자료)(2023.4)

166) U.S Federal Register notice(2023)

등의 활동이 포함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가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해양포유류 자원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의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을 위한 어구 개발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보호체계에 관한 정부의 노력을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으로 특화**시켜, 국제사회의 해양포유류 보호 인식 확산의 선도국가로서 지위를 확립하고, 비교적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한 아프리카 권역의 동조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정책과제

1) 국제수산개발협력 운영체계 명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률은 제1장 총칙 등 제4장 36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제2절은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21조는 국제협력 추진에 관한 노력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1조의2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2

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동법 시행령 14조의2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⁶⁷⁾ 그리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⁶⁸⁾

현행 법령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에 관하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조항만 존재하고,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체가 불명확하며, 성과관리(평가계획 등)에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는 2장 해양수산부의 국제수산업 협력 수행체계에 서 언급한 수산 ODA 전략 수립 주체와 법의 모호성과 연결되는 문제점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해양수산분야 국제수산업 협력 사업의 총괄은 해양정책실의 국제협력총괄과이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국제수산업 협력 중 국제개발협력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가칭)「해외수산업 개발협력법」과 같은 전문화된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대아프리카 국제수산업 협력 세부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3년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개발협력 전략의 부재를 인지하고,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

16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31호, 2021.8.6.)

168)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3-53호, 2023.3.9.)

카 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였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높고, 수산분야에 대한 개발 협력 수요가 높은 만큼,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국제수산협력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 대상으로 통합적인 기초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정명화 외(2015)는 아프리카 국가의 해양수산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 대상국을 수산자원국과 양식환경국으로 분류하고, 지표 개발을 통해 협력 대상 국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별 국제수산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현지 수산업 기반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아프리카의 수산업 동향, 인프라 및 시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여, 아프리카의 국별, 부문별 지원 대상을 분류하고 사업의 지원 방향 및 전략과 중점 분야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4-2〉 아프리카 국가별 수산특화 분류

순위	국가	가중치합(%)	순위	국가	가중치합(%)
1	가나	89.2	11	나이지리아	68.8
2	세네갈	76.6	12	모잠비크	67.6
3	마다가스카르	76.0	13	탄자니아	67.0
4	시에라리온	75.4	14	나미비아	63.4
5	모로코	74.2	15	앙골라	59.2
6	모리타니아	73.6	16	말라위	58
7	세이셸	73.0	17	감비아	55.6
8	우간다	72.4	18	카메룬	52.6
9	튀니지	71.8	19	베닌	48.4
10	말리	68.8	20	기니	43.6

주: 아프리카 국가의 어업 총생산량의 10년 평균 생산량, GDP 대비 어업생산액 비중, 어업총인구의 백분위 점수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순위를 선정함

자료: 정명화 외(2015), p. 207

3) 국제수산협력 운영 조직 강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14조의2¹⁶⁹⁾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법률이다. 이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는 2020년 9월에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2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전문기관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필요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관된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지정 기간을 기존의 3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산 ODA 사업의 정보 축적 및 사후 관리와 ODA 사업 기간을 고려한다면, 전문기관 지정 기간 연장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내 수산부문 양자협력업무와 다자협력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부처 ODA 예산 규모가 증가한 만큼 실시기관도 다양해져, ODA 업무의 전문성과 컨트롤 타워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조직 구성 측면에서는 양자협력 부문에 아프리카, 카리브 및 중남미, 남태평양, 아시아 등 권역별 담당자를 두도록 한다. 그리고 양자협력 외에 협력 사업은 권역별 지역수산기구, 다자경제협력체, 선진국 협력업무를 구분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169) 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지역수산기구로는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국 수산협력 각료 회의(ATLAFCO: Ministerial Conference on Fisheries Cooperation among African States bordering the Atlantic Ocean), 기니만지역수 산위원회(COREP: Commission Régionale des Pêches du Golfe de Guinée) 등이 있다. 또한 경제협력체로는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협력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중앙아프 리카 국가 경제협력체(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동아프리카경제협력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가 있어 이를 다자협력사업실의 우선적 협력 대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4) 국제수산협력 특화 자원 조성

수산분야라는 특정 산업영역에서 안정적인 국제협력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자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수산협력에 특화 된 자원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부터 수산경영체 성장기반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수산펀드’ 를 결성하여 2023년까지 1,456억 원 규모로 수산경영체에 투자한 바 있고, 2024년에는 350억 원 규모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하였다.¹⁷⁰⁾ 더불어, 원양 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한 원양어선 안전펀드¹⁷¹⁾ 또한 대표적인 자원 조성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이러한 경험은 국제수산협력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고려하 여야 할 중요한 검토 사안이다. 특히, 효과적인 국제수산협력 사업 추진에

170) 어업인수산(2024.2.27.)(검색일: 2024.9.9.)

17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1.17.)(검색일: 2024.9.9.)

있어 민간 기업체 연계는 필수적인 상황으로, 국내 수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과 기업의 책임 있는 협력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국제수산업 협력 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 추진 기반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05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요약 및 결론

아프리카는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으로,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정보 수집과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세밀한 전략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아프리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에서는 개발협력 대상국으로 아프리카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앙정책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협력전략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수산분야에서 대서양, 인도양 등 아프리카 해역을 매개로 한 국제협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 국내 수산업의 연계 전략은 아직 명확히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수산협력이 가시화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수산협력 체계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2장은 이러한 국제수산협력 체계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 아프리카 협력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아프리카 수산협력 트렌드와 사례 제시를 위해 국내외 개발협력 정책의 트렌드 변화와 미국, 노르웨이,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수산협력 사업을 살펴보았다. 4장은 앞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수산협력 사업 및 정책 추진여건을 SWOT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수산협력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핵심사업(안)을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사업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국제수산협력 체계를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국제수산협력 정책과 사업은 다양한 수산분야 법률의 국제협력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일원화된 정책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관 부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수산 ODA 부문은 총괄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과 계획이 부재하였기에, 정책을 근거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과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강점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규모화된 사업 검토 등의 노력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국제수산협력 체계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에 있어서 수산업의 활용이 미진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었음을 돌이켜 보게 된다.

그럼에도 국내 수산업은 국제협력에 있어 특화된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국내 수산 인프라와 국제수산규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습득한 국내 수산자원관리 노하우를 보유한 국가이다. 더욱이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안으로 한 아프리카 대륙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할 때, 수산업은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활로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의 국제수산협력 체계는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아우를 수 있고, 국제협력에서 수산업이 강조될 수 있도록 수산분야의 전문화된 개발협력 전략과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의 체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정책체계의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어떠한 방향으로 대아프리카 국제수산업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설정된 연구의 목적과 범위인 국제수산업협력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대아프리카 수산업협력 사업 구상과 접근 방법,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다소 기초자료 확보 및 활용이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별 수산업 특성에 대한 사전분석이 부재하였고, 민간 기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고루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세밀화된 사업추진 로드맵 제안과 정부 차원 및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민간 차원에서 국내 수산업의 대아프리카 국제협력에 관한 수요를 도출하고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본래의 연구 취지에 국한되어, 연구내용을 확장하지 못하였던 부분에서 비롯된 제약요소이며,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별 수산업 특성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수산업 생산·시장 구조, 사회·경제·정책적 인프라, 대외교역 및 협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중점협력국 및 분야, 전략 품종 등 세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공여 국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특징과 강점을 세분화하여,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을 비롯하여 국제수산업협력과 연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 제언

1. 국제수산협력의 독자적 법률 기반 확보

현재 해양수산부의 국제수산협력 사업은 각 과의 소관 법률에 근거한 기본 또는 종합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수산협력 정책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산 ODA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국제협력총괄과에서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사업 수요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산 ODA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계획을 담은 전략이나 기본계획이 부재함도 확인하였다. 현 국제수산협력 추진체계는 수산정책관과 국제협력관이 수산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국제수산협력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수산 ODA 사업의 연속성과 국제협력사업 간 연계로 확장성을 도모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제수산협력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산 국제협력사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산부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그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전문화된 전략과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 ODA 계획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수산업의 산업적 특수성과 아프리카 현지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부처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 부처에서는 별도로 마련한 법령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종합계획 수립, 평가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총괄담당관과 전담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사업시행, 성과관리의 주체와 방법이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수산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종합적·전략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1〉 타 부처 국제협력사업 계획 수립 현황

기관명	사업 구분	근거법	계획 또는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국제협력 (R&D)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글로벌기술협력종합전략
	ODA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산업·에너지 ODA 중장기 전략, 기본계획 등 권역별·분야별 개발 협력 전략 마련, 산업·에너지 ODA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ODA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사업 운영 규정」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

자료: 저자 작성

첫 번째 안은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21조의2제1항과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개발협력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항목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개정된 법을 근거로 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현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만 한정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수산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 수립, 사업발굴, 사업시행, 성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담당 부서를 명

시한 (가칭)「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표 5-2〉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가칭)「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1조의2: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 당위성 및 지원 사항 명시, 지원사항 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제2장 추진체계: 국제수산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제3장 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신규사업의 발굴, 타당성 조사 등 제4장 사업수행: 사업공고·신청, 평가 등 제5장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결과 보고, 자체 평가, 사후관리 등

자료: 저자 작성

두 번째 안은 (가칭)「해외수산업 개발협력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고려하는 것이다. 과거 2013년 17억 원 수준에 머물렀던 해양수산 ODA 규모는 2023년 287.3억 원 수준으로 10년간 17배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428.9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기여 강화로 수산분야 ODA를 포함한 국제수산협력 사업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할 때, (가칭)「해외수산업 개발협력법」의 제정은 독자적인 법률을 통한 안정적인 지속적 국제수산협력 정책 동력을 확보하고, 국내 수산업의 글로벌 역할 강화와 선도국가로서 지위를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위해 제정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들 수 있다.¹⁷²⁾ 동 법률은 2023년 10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국제농

172) 해외농업개발협력법(법률 제10843호, 2011.7.14.)

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제5조의3)과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제5조의4)을 법제화하였다.¹⁷³⁾ 그리고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5조의2),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설치·운영(제6조),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 지원(제23조~29조) 등 전략 수립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분야별 국제협력 추진 기반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수산부문의 독자적인 개발협력법 제정에 중요한 참고 입법례가 될 수 있다.

〈표 5-3〉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가칭)「해외수산업 개발협력법」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해외수산자원 개발방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해외수산자원개발종합계획 등: 해외수산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국제수산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국제수산업협력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3장 해외수산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보조, 지원, 융자, 조세에 대한 특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장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국제수산업협력사업 지원 항목, 추진체계, 전문기관 지정 등

자료: 저자 작성

2. 국제수산업 협력 조직체계 개선

체계적인 국제수산업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조직체계 개선 또한 중요한 검토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 다수 언급하였다시피, 해양수산부의 수산 ODA 사업 예산은 연차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대외정책 방향이 아프리카로 확장됨에 따라 국제수산업 협력의 지역 범위와 사업 단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규모 확장에 있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조직구성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국제협력사업의 성격에 따라(양자 또는 다자) 지역 담당자를 두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권역별 및 업무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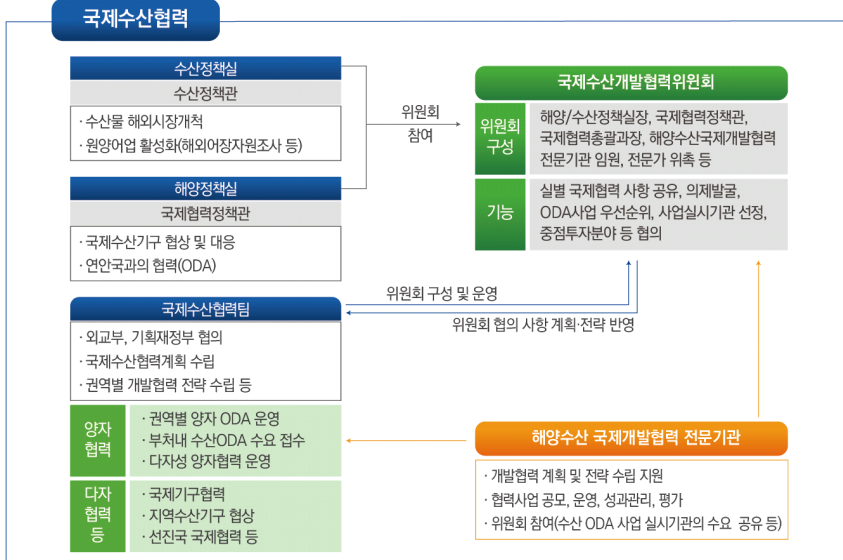
17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13032호, 2015.1.20.)

별로 관 또는 과를 두어 부처의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는 해양수산 ODA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지역수산물관리국 대응, 수산부문 다자협력, 국제회의나 동향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해양수산분야의 국제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분야별 총괄이 아닌 전체 총괄만을 두고 있으며, 해양수산 ODA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제수산협력 업무의 규모와 범위, 신규 발굴 어젠다 등을 고려할 때, 국제수산협력팀과 같은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수산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수산 ODA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수산협력의 방식과 권역에 있어 세분화된 접근을 고려한다면, 양자협력에 있어서 아프리카, 카리브 및 중남미, 남태평양, 아시아 지역 담당자를 두고, 다자협력은 권역별 지역수산기구, 다자경제협력체와 협력 담당자를 배치하는 형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칭)국제수산개발협력위원회와 같은 총괄 논의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수산 ODA 정책방향과 비전, 세부사업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책협의체로서, 수산분야의 개별 정책 담당을 위원으로 하여 다양한 의제 발굴과 정책적 협력을 도모하는 구심점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세부 기능으로는 ODA 사업의 우선순위, 중점 지원 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를 합의하고, ODA 사업 외 협력사업과 단계별 연계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체계적인 수산 ODA의 운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림 5-1〉 국제수산협력 조직체계도 구상(안)



자료: 저자 작성

3.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강화

국제협력에 있어 민간협력과 국제기구와의 연계는 사업 방향성 설정과 효과적 운영, 전문성 향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3장인 아프리카 수산협력 트렌드 및 사례 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고 있고, 수산협력을 추진하는 다수의 국가들도 국제기구, 시민단체, 기업 등 다중의 이해관계자를 연계한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제수산협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많은 국제기구들이 다수의 아프리카 협력을 추진한 경험 있는바, 현지 상황과 정

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결과적으로 맞춤형 사업의 개발과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삼각협력과 같은 외교력을 기반으로 한 규모화된 접근으로 국제개발협력 형태 및 방식 다각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수산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수요는 주로 원양어업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안어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산부문 민간 파트너십이 다각화되는 추세이다. 가령, 현지 국가와의 사전협력이 요구되는 해외어장자원조사 사업에서 국내 연안어업이 아프리카 해역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수요 또한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업종, 어법, 기자재 등이 수반되는 국내 수산업의 특성을 살려 아프리카와의 협력 시 제안 요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민간 사업체와의 협력은 국제협력사업의 발굴과 운영 등 추진과정에 있어서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자문 기반이 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선주(2021), 2021년 G20 정상회의: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합의와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관계부처 합동(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_____ (2022a), 다자협력 추진전략('22-'26).

_____ (2022b), 민간부문 참여 전략.

_____ (2023),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_____ (2024),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권율(2022), 국제개발협력과 원조 정책의 체계화, 미래정책포커스, 35,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p. 69.

김강석 외(2023),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복희(2020), 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삼각협력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연구.

대한민국정부(2023),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

박영호 외(2008),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호 외(2012),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신희철 외(2023), 지속가능한 교통부문 국제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방안, 한국교통
연구원.

-
- 외교부(2008), ODA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구축 방안.
- 이대섭 외(2012), 국제사회 농업·농촌부문 협력전략 분석-시사점 및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승호·강문수(2021),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주영(2023), SDG 달성을 위한 2023 유엔 고위급회의의 주요 의제와 정책 시사점.
- 이재훈 외(2019),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훈기 외(2023), 국토교통 ODA사업의 현황진단 및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 정명화 외(2015),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굴 연구(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 정우현 외(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3, 통계개발원.
- 정진규(2011), 부산총회 이후 민간부문의 역할, 국제개발협력, 11(4), pp. 95-104.
- 조정희 외(2015), Post 2015의 개발의제 주요 논의 동향 및 시사점(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동주 외(2017), 아프리카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전략 연구-동부 아프리카 주요국을 대상으로, 산업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2023), 20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및 전망.
- 한국국제협력단(2020), KOICA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 한덕훈 외(2019),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덕훈 외(2021), 해양수산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해양수산 ODA 증장기 발전 전략, 해양수산부, p. 59.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24), OCEAN Tomorrow, With KIMST, 34호.
- 해양수산부(2021a),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 _____(2021b),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
- _____(2024a),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38).
- _____(2024b), 2024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pp. 308-1638.

행정안전부(2009), 국제협력 매뉴얼.

홍현표(2010), '한·아프리카 수산포럼(KORAFF)의 발족을 제안하며', 수산정책연구, 7, pp. 5-12.

홍현표 외(2010), 수산분야 ODA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현표 외(2011), 글로벌 수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국외 문헌

AfDB·ECA·UNDP(2024), Securing Africa's Economic Future Amidst Rising Uncertainty, African Economic Conference 2024.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2024), THE TEN-YEAR STRATEGY 2024-2033.

AU/UNECA/AfDB/ UNDP(2022), 2022 Africa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UNDP.

Ayadi, Rym & Ronco, Sara(2023),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id in the EU-Africa Partnership, EMEA Studies.

Blue Food Assessment(2021), Building Blue Food Futures for People and the Planet(DOI: 10.25740/rd224xj7484).

FAO(2001),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_____(2014),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_____(2018),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_____(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_____(2022),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_____(2024),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_____(2023),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pp. 1-2. PROFESSIONS IN MOROCCO.

FAO(2024),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
- IATTC(2024), INTERIM MINIMUM STANDARDS FOR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EMS) IN IATTC FISHERIES, Resolution(C-24-09).
- Kappel, Robert(2021), Africa's Employment Challenges, Friedrich Ebert Stiftung.
- Liu, lao & Yu, Huijuan (2017), Study on construction of overseas base of offshore fishery in China, Chinese Fisheries Economics 35(2), pp. 8-23.
- NOAA Fisheries(2023), 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 Norad(2019), Fish for Development-Policy document.
- _____(2020), The Knowledge Bank Strategy 2020-2025.
- Norwegian Ministries(2019), Blue Opportunities.
-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8), Platform for an Integrated Africa Policy.
- _____(2023), Combining forces against hunger-a policy to improve food self-sufficiency.
- OECD(2022), OECD work in support of a sustainable ocean.
- _____(2023a),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 _____(2023b),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3.
- _____(2024),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 sustainable ocean economy in 2022: A snapshot.
- Pittman, Jeremy et al.(2019), A global assessment of structural change in development funding for fisheries, Marine Policy 109, pp. 1-9.
- Ray, Joseph Mario & Robsona, Volaniaina(2019), An Aquaculture Industry for Madagascar- Increased and Diversified Sources of Revenue in Southwest Madagascar(2016-2019) Final Evaluation Report.
- USAID(2013), SUSTAINABLE FISHERIES AND RESPONSIBLE AQUACULTURE: A Guide for USAID Staff and Partners, pp. viii, 9, 17, 26.
- _____(2018), The Role of Wild-Caught Fisheries in African Development.
- _____(2020), Sénégal Dekkal Geej, Vers une pêche durable.
- USAID(2024), Feed The future Ghana Fisheries Recovery Activity, pp. 1-2.

WCPFC(2024)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ON CREW LABOUR STANDARD.

World Bank(2020), 2050 Strategic Directions Note pp. 11-75.

WorldFish(2021), Increased Sustainability in the Aquaculture Sector in sub-Saharan Africa, through Improved Aquatic Animal Health Management.

법률 자료

〈 국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19998호, 2024.1.1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55호, 2022.1.1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수산자원관리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9691호, 2023.8.16.)

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9807호, 2023.10.31.)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3-53호, 2023.3.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9145호, 2022.12.2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31호, 2021.8.6.)

해외농업개발협력법(법률 제10843호, 2011.7.14.)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13032호, 2015.1.20.)

〈 해외 〉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P.L. 92-522; 16 U.S.C. §§1361-1423h: 1972)

U.S.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81 FR 54390; August 15, 2016)

U.S Federal Register notice (88 FR 80193; November 17, 2023)

인터넷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6.30.),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43056&srSearchVal=%EC%A0%9C42%EC%B0%A8+%EA%B5%AD%EC%A0%9C%EA%B0%9C%EB%B0%9C&article.offset=0&articleLimit=10>(검색일: 2024.6.2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4.6.26.),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851&pWise=mSub&pWiseSub=C2#pressRelease>(검색일: 2024.6.26.)

대한민국 대통령실 보도자료(2024.6.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http://www.president.go.kr/newsroom/press/L6VAe3Lz>(검색일: 2024.6.23.)

외교부, ODA추진·지원, https://www.mofa.go.kr/www/wpge/m_21374/contents.do(검색일: 2024.6.17.)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명예해양수산물, <https://www.ofis.or.kr/honor/lists>(검색일: 2024.6.2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9.1.17.),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 펀드 관리기관 공모, https://www.mof.go.kr/jfile/readDownloadFile.do?fileType=MOF_ARTICLE&fileTypeSeq=24474&fileNum=1(검색일: 2024.9.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2.2.), 2023년 해양수산공적개발원조(ODA) 20여개국에 287억원 규모로 추진,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48921&menuSeq=971&bbsSeq=10>(검색일: 2024.6.1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1.18.), 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자원… 해수부, 해외 대체어장 찾는다,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5015&bbsSeq=10&menuSeq=971>(검색일: 2024.6.17.)

African Union 홈페이지, <https://au.int/en/agenda2063/overview>(검색일: 2024.7.2.)

AMCI 홈페이지, <https://www.gasam.net/amci-moherst>(검색일: 2024.9.4.)

AquaVitae, IMTA, <https://aquavitaeproject.eu/value-chains-case-studies/ii-inte>

- grated-multi-trophic-aquaculture-imta-land-based-and-sea-based-new-species-and-systems/(검색일: 2024.8.24.)
- Baidu Baike, 全球发展倡议, <https://baike.baidu.com/item/%E5%85%A8%E7%90%83%E5%8F%91%E5%B1%95%E5%80%A1%E8%AE%AE/58614741>(검색일: 2024.9.5.)
- Baidu Baike, 农业, <https://baike.baidu.com/item/%E5%86%9C%E4%B8%A3/330015>(검색일: 2024.9.5.)
- Baidu Baike, 一带一路, <https://baike.baidu.com/item/%E4%B8%80%E5%B8%A6%E4%B8%80%E8%B7%AF/13132427>(검색일: 2024.9.5.)
- Baidu Baike, 中非渔业联盟,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9%9D%9E%E6%B8%94%E4%B8%A9%E8%81%94%E7%9B%9F?fromModule=lemma_search-box(검색일: 2024.9.5.)
- Blue Justice Initiative 홈페이지, <https://bluejustice.org/about/>(검색일: 2024.4.18.)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3.4.13.), World Trade Organization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11929>(검색일: 2024.10.23.)
- FAO, Fishstat, <https://www.fao.org/fishery/en/fishstat>(검색일: 2024.6.27.)
- Golden Tilapia 홈페이지, <https://goldentilapiafarmers.com/about/>(검색일: 2024.4.12.)
- KOREA OCEANAID 홈페이지, <https://oceanaid.or.kr/>(검색일: 2024.6.27.)
- ITPM LARACHE 홈페이지, <https://itpm-larache.ma/>(검색일: 2024.9.4.)
- JICA, French-speaking Africa Fisherie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https://www.jica.go.jp/oda/project/1400326/index.html?wovn=en>(검색일: 2024.9.4.)
- JICA, OCEANOGRAPHIC AND FISHERY RESEARCH VESSEL CONSTRUCTION PROJECT, <https://www.jica.go.jp/oda/project/MR-P34/index.html?wovn=en>(검색일: 2024.9.4.)
- JICA, ODA and JICA, <https://www.jica.go.jp/english/about/basic/oda/index.html>(검색일: 2024.9.4.)
- JICA, Project on Co-management of Coastal Fisheries in the Gulf of Gabes, <https://>

-
- www.jica.go.jp/oda/project/1100481/index.html?wovn=en(검색일: 2024.9.4.)
- JICA, Project to formulate a plan to promote joint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through value chain development, <https://www.jica.go.jp/oda/project/1200392/index.html?wovn=en>(검색일: 2024.9.4.)
- JICA, The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Fishery Surveillance Vessels(검색일: 2024.9.4.)
- JICA, グローバル・アジェンダ, 5. 農業・村落開発, <https://www.jica.go.jp/activities/issues/agricul/index.html>(검색일: 2024.9.4.)
- JICA, 課題別指針 水産, https://www.jica.go.jp/Resource/activities/issues/agricul/ku57pq00002cubgq-att/guideline_fishery.pdf(검색일: 2024.9.4.)
- Larive International, Samaki Poa, <https://www.larive.com/samaki-poa/>(검색일: 2024.4.14.)
- Nelson Mandela University, About FishForce, <https://fishforce.mandela.ac.za/About-FishFORCE>(검색일: 2024.4.16.)
- NOAA Fisheries, Fisher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https://www.fisheries.noaa.gov/foreign/international-affairs/fisheries-international-cooperation-projects>(검색일: 2024.6.17.)
- Norad 홈페이지, <https://www.norad.no/en/front>(검색일: 2024.4.14.)
- Norad, An Aquaculture Industry for Madagascar, <https://www.norad.no/en/toolspublications/publications/ngo-evaluations/2020/an-aquaculture-industry-for-madagascar-increased-and-diversified-sources-of-revenue-2016-2019/>(검색일: 2024.4.16.)
- Norfund 홈페이지, <https://www.norfund.no/our-investments/all-investments/>(검색일: 2024.4.25.; 2024.6.4.)
- NorgesVel, CEPAQ - The Centre for Aquaculture Research, <https://www.norgesvel.com/projects/cepaq-the-centre-for-aquaculture-research>(검색일: 2024.4.24.)
- NorgesVel, Farming sea cucumbers and cultivating algae contribute to a new blue economy, <https://www.norgesvel.com/projects/algae-cultivation-and-s>

- ea-cucumber-farming-have-created-new-blue-businesses(검색일: 2024. 4.16.)
- Norwegian development aid statistics and results 홈페이지, <https://resultater.nord.no/en>(검색일: 2024.4.15.)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u/oda/about/oda/oda_keitai.html(검색일: 2024.6.28.)
- ODA KOREA, 우리나라 ODA, 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36(검색일: 2024.6.17.)
- ODA KOREA, ODA 통계,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type=Stats#/tileLayout>(검색일: 2024.6.28.)
- ODA KOREA, ODA 통계-지역별 지원, <https://www.odakorea.go.kr/statistic/main#/tileLayout>(검색일: 2024.7.18.)
- OECD, ODA recipients: countries, territo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oda-eligibility-and-conditions/dac-list-of-oda-recipients.html#oda-recipients-list>(검색일: 2024.3.2.)
- OEC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ttps://www.oecd.org/en/topics/policy-issue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html>(검색일: 2024.6.28.)
- OECD Stat, https://www.oecd-ilibrary.org/search?value1=oda&option1=quicksearch&facetOptions=51&facetNames=pub_igoId_facet&operator51=AND&option51=pub_igoId_facet&value51=%27igo%2Foecd%27&publisherId=%2Fcontent%2Figo%2Foecd&searchType=quick(검색일: 2024.2.23.)
- TMT 홈페이지, <https://www.tm-tracking.org/what-we-do>(검색일: 2024.4.15.)
- UN ECA(2024.7.12.), (Blog) As Africa's Population Crosses 1.5 Billion, The Demographic Window Is Opening: Getting The Dividend Requires More Time And Stronger Effort, <https://www.uneca.org/stories/%28blog%29-as-africa%E2%80%99s-population-crosses-1.5-billion%2C-the-demographic-window-is-opening-getting>(검색일: 2024.9.9.)
- UN SDGs협회 홈페이지, https://asdun.org/?page_id=2183(검색일: 2024.9.9.)
-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홈페이지, <https://unsouthsouth.org/>(검색일: 2024.6.28.)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FishNET Training on Fisheries Crime Level II, <https://www.unodc.org/unodc/ccp/news-and-events/fishnet-training-on-fisheries-crime-level-ii.html>(검색일: 2024.4.17.)

WorldFish, FASA, <https://worldfishcenter.org/project/development-and-scaling-sustainable-feeds-resilient-aquatic-food-systems-sub-saharan-africa> (검색일: 2024.4.16.)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홈페이지, <https://wmo.int/news/media-centre/africa-suffers-disproportionately-from-climate-change>(검색일: 2024.8.13.)

国際水産技術開発, 公益財団法人海外漁業協力財団, <http://faiaqua.com/overseas-fisheries-cooperation-foundation/>(검색일: 2024.9.4.)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輸出入情報・概況, <https://www.maff.go.jp/j/tokei/kouhyou/kokusai/index.html#r>(검색일: 2024.9.4.)

公益財団法人海外漁業協力財団 홈페이지, <https://www.ofcf.or.jp/pages/28/>(검색일: 2024.9.4.)

인터넷기사

내일신문(2024.4.24.), 한·아프리카 수산협력, 알제리 새우양식성과, <https://m.naeil.com/news/read/508412>(검색일: 2024.8.27.)

농수축산신문(2024.8.30.), [초점] 2024 국정감사 수산부문 주요 현안은,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063>(검색일: 2024.9.9.)

부산일보(2024.1.14.), 국립부경대, 탄자니아 여성 어업인에게 노하우 전수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11413484299689> (검색일: 2024.9.27.)

수산인신문(2010.12.6.), ‘한·아프리카 수산포럼’ 창립, <https://www.isusa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5>(검색일: 2024.6.17.)

어업인수산(2024.2.27.), 해수부, 350억 규모 수산펀드 2개 조성,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14>(검색일: 2024.9.9.)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원양산업뉴스(2024.1.30.), 탄자니아 여성어업인에 해조류 양식 기술 전수, https://www.ofis.or.kr/boards/view/board_news/20829/page/240(검색일: 2024.8.27.)
- 인민망(2022.5.27.), 中非渔业暨水产品推介对接会在长沙举办, <http://hn.people.com.cn/n2/2022/0527/c336521-35289208.html>(검색일: 2024.9.5.)
- 주간경향(2021.10.25.), (12)스마트양식 연구 이동길 첨단양식실증센터장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110151351521&code=#c2b(검색일: 2024.9.27.)
- 중국 농업농촌부(2016.1.27.), 中非渔业合作三十载 互利共赢成果显著, https://www.moa.gov.cn/xw/gjil/201601/t20160127_5000396.htm(검색일: 2024.9.5.)
- 중국 농업농촌부(2022.1.6.), 农业农村部印发《“十四五”全国渔业发展规划》, http://www.moa.gov.cn/xw/zwdt/202201/t20220106_6386442.htm(검색일: 2024.9.5.)
- 중국 농촌진흥온라인(2022.11.18.), 践行全球发展倡议 中方专家赴乌干达执行援外任务, http://f.china.com.cn/2022-11/18/content_78526382.htm(검색일: 2024.9.5.)
- 중국 일대일로망(2021.7.23.), 宏东渔业兰平勇: 到万里之外的非洲西海岸去捕鱼, <https://www.yidaiyilu.gov.cn/p/181135.html>(검색일: 2024.9.5.)
- 중국 중앙인민정부포털(2020.6.1.), 农业农村部关于加强公海鱿鱼资源养护促进我国远洋渔业可持续发展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0-06/03/content_5516936.htm(검색일: 2024.9.5.)
- 중국 중앙인민정부포털(2020.6.2.), 农业农村部关于实施2023年公海自主休渔措施的通知,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6/content_6885037.htm(검색일: 2024.9.5.)
- 한국일보(2023.1.10.), “미래를 향해 아프리카로 ...”, 미·중·일의 아프리카 삼국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009550002652>(검색일: 2024.2.22.)
- (2024.5.7.),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http://www.fishec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474>(검색일: 2024.8.13.)

-
- 해사신문(2023.5.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0개국 40명 국제승선실습 교육 실시,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899>(검색일: 2024.6.17.)
- 현대해양(2023.11.9.), 세계해사대학-해수부-KMI, 불법어업에 공동대응 논의,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85>(검색일: 2024.8.25.)
- Blue Justice Initiative News(2021.7.9.), The Blue Justice Initiative and UNDP Blue Resilience join as supporters of the One Ocean Expedition, part of the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bluejustice.org/news/blue-justice-initiative-undp-blue-resilience-join-as-supporters-of-one-ocean-expedition/>(검색일: 2024.4.18.)
- CCTV(2023.10.16.), “一带一路”海洋合作正向多领域全方位深层次发展, <https://ocean.cctv.com/2023/10/16/ARTInAXdCpQnUyw2C4qfv8hH231016.shtml> (검색일: 2024.9.5.)
- Chinanews(2024.3.26.), 科研成果丰硕 我国完成印度洋渔业资源调查, <https://www.chinanews.com.cn/gn/2024/03-26/10186897.shtml>(검색일: 2024.9.5.)
- FAO News(2024.3.21.), SVC4SIDS and EAF Nansen Programme advances improved fisheries management in Cabo Verde, <https://www.fao.org/in-action/eaf-nansen/news-events/detail-events/en/c/1680009/>(검색일: 2024.4.17.)
- Fish Site(2023.7.11.), WorldFish and Norway promote renewable energy for Egyptian aquaculture, <https://thefishsite.com/articles/worldfish-and-norway-promote-renewable-energy-for-egyptian-aquaculture>(검색일 2024.4.12.)
- FiskerForum(2024.1.7.), FAO and Norway announce new phase of EAF-Nansen Programme, <https://fiskerforum.com/fao-and-norway-announce-new-phase-of-eaf-nansen-programme/>(검색일: 2024.4.18.)
- Freshwater Fisheries Research Center(2023.1.1.), 共享发展 渔见未来——淡水中心 2021-2022援外培训工作综论, <https://www.ffrc.cn/info/1066/10614.htm> (검색일: 2024.9.5.)
- IMPACT ON(2023.12.1.), COP28 첫날,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 출범…미국 기부금은 UAE의 5분의 1수준,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20>(검색일: 2024.4.26.)

- MITSUI E&S(2020.12.18.), モロッコ王国 国立漁業研究所向け 海洋・漁業調査船竣工, https://www.mes.co.jp/press/2020/1218_001530.html(검색일: 2024.9.4.)
- SBS Biz(2023.10.30.), 2050년 '젊은층 급증' 전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아프리카인,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1525>(검색일: 2024.9.8.)
- Shenzhen Qianzhan(2022.12.30.), 舟山远洋渔业高质量发展三年攻坚行动方案(2023—2025年), <https://f.qianzhan.com/chanyeguihua/detail/221230-05b42eed.html>(검색일: 2024.9.5.)
- SOHU(2021.1.21.), 【一带一路】蓝色经济赋能中非“海上丝路”高质量发展：内在机理与实践路径, https://www.sohu.com/a/445829562_617730(검색일: 2024.9.5.)
- SOHU(2021.9.27.), 《上海宣言》《促进南南和三方水产养殖可持续发展合作的倡议》共同呼吁全球水产养殖业可持续发展, https://www.sohu.com/a/492429359_121123696(검색일: 2024.9.5.)
- thepapaer(2018.9.1.), 中非合作论坛即将开幕，一起重温与非洲老朋友的“海洋友谊”, https://m.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402037(검색일: 2024.9.5.)
- USAID(2024.2.23.), USAID Continues to Support the Fisheries Sector in Malawi, <https://www.usaid.gov/malawi/news/usaid-continues-support-fisheries-sector-malawi>(검색일: 2024.6.17.)
- World Bank Blogs(2017.11.11.), Climate Impacts on African Fisheries: The Imperative to Understand and Act, <https://blogs.worldbank.org/en/nasikiliza/climate-impacts-on-african-fisheries-the-imperative-to-understand-and-act>(검색일: 2024.2.26.)
- WorldFish 홈페이지(2022.3.26.), Press Release: WorldFish signs agreement with Premium Aquaculture Limited to transfer GIFT to Nigeria, <https://worldfishcenter.org/press-release/press-release-worldfish-signs-agreement-premium-aquaculture-limited-transfer-gift>(검색일: 2024.10.2.)

회의 및 자문자료

경북연구원 양현주 부연구위원 자문회의(2024.4.15.; 2024.4.22., 대한민국 부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선임연구위원 자문회의(2024.4.25., 영상회의)

부경대학교 강경미 조교수 자문회의(2024.8.27., 대한민국 부산)

알제리 정부 아흐메드 바다니 수산부 장관 회의(2024.4.21., 알제리 알제)

한국원양산업협회 이상묵 센터장 서면자문(2024.7.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센터 전유덕 센터장 서면자문(2024.8.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한덕훈 연구위원 자문회의(2024.8.21., 대한민국 부산)

해외어업협력센터 유지혜 팀장 자문회의(2024.8.27., 대한민국 부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범준 서기관 자문회의(2024.7.30., 영상회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정지윤 주무관 자문회의(2024.9.12., 영상회의)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권명광 센터장 서면자문(2024.8.30.)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

01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최일선
02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좌미라
03	시민친화적 바닷가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정지호
04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석문
05	특별관리해역 관리제도 재편 방안 연구	최수빈
06	해양관할구역 과세권한의 체계적 배분방안 연구	이혜영
07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서연
08	수산물 무역(수출입) 단기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기욱
09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10	어촌다움에 기반한 어촌공간관리 방안 연구	이승혜
11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	김한나
12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허성례
1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세원
14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전략 연구	김근섭
15	항만 하역능력의 서비스 수준 개선 연구	이화섭
16	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근섭
17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혜리
18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나영환
1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강무홍
20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이성우

2023년

01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해상교통관제 대응방안 연구	박상원
02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역규범의 해양수산분야 영향 분석 연구	임병호
0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항만의 대응방안 연구	이나영
04	연안재해 정보 활용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5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최석우
06	마을어장 이용·관리 개선방안 연구	마창모
07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사회·생태복원 중심으로 -	최석문
08	주민행태기반 해양정책 수용성 제고 설계 방안 연구	이슬기
09	항만연관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김세원
10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조아현
11	물류 연계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방안 연구 - 항만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	서정용
12	어업분야 종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연구	고동훈
13	수산물의 디지털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건
14	항만개발사업의 정책영향평가 연구	이수영
15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 예측과 국내 대응 전략 연구	이호춘
16	어선현대화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17	연안도시의 쇠퇴와 대응방안 연구	강창우
18	해양범죄 실태 진단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민영훈
19	민간기업의 해양환경분야 ESG 활성화 방안 연구	김지윤
20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연구	허수진
21	지방분권시대의 수산업·어촌분야 대응전략 연구	이호림
22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김한나
2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망 최적화 방안 연구 : 한국-북미 물류공급망 중심	이성우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년

0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03	해양안보 MDA 체계 구축·활용 방안 연구	민영훈
0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한장협
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06	부산항 물동량 유치방안 연구	김은우
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채수란
08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아
09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순
10	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심성현
11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황수진
12	연안 중소선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지원방안	류희영
13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김보경
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1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장원근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윤미경
17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신정훈
18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발전방안 연구	권보배
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Ⅰ 2023년

01	양식어업 비과세 합리화 방안 연구	이정필
02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정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일선
03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안승현
04	블루푸드테크 전문기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동림
05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 요인 연구	이혜영
06	양식장 내 어류 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오서연
07	해양플라스틱 재활용산업 공급사슬 기반 조성 연구	이윤정
08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ESG경영 가이드라인 구축 연구	이재호
09	신항만건설사업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보경
10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정아
11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박수진
12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지원
13	어선의 친환경에너지 전환방안 연구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4년

0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김엄지
02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박수진
03	해양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연구	최희정
04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 중심으로	조현주
05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 방안 연구(한·태 무역을 중심으로)	한기욱
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혜진
07	탄소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철광석, 화학공업생산물, 기타광석, 잡화를 중심으로	이나영
11	접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Ⅰ 2023년

01	해양수산업 조기경보지수 개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을 중심으로	권장한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Ⅱ)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강무홍
0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기욱
04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Ⅱ) - 유류, 철재, 모래, 목재, 양곡을 중심으로	이화섭
05	대기행렬모형을 활용한 선박대기비용 절감 편익 산정 연구	조아현
06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세부항목별 효과산정 방법 연구	이종필
07	해양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최희정
08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방안 연구	황진희
09	해운 경기순환 분석 및 예측 연구	황수진
10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수입수산물 전략품목 관리 방안 연구	박혜진
11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방안 연구	이지원
12	선사공동행위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류희영

수시연구 2024-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물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인쇄 2024년 11월 28일

발행 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김 종 덕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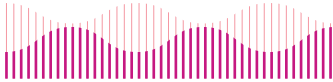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동아기획 (051-291-7605)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Korea-Afr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Fisheri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9 791168 661981

ISBN 979-11-6866-198-1



93300

값 15,000원